



우리가교회가 예배 처소를 크랜셔와 올림픽 길로 이전했다.

사랑하고, 용서하며, 초대하는 교회 우리가교회 예배처소 이전

크랜셔와 올림픽 길로 이전

교회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을까? 교회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

잘 갖춰진 음향시설과 벽 한면을 가득 채운 LED 화면에는 감성을 자극하는 영상, 찬양인도자의 은혜로운 찬양이 교회 본당에 울려 퍼지며, 장로님 혹은 권사님의 연륜이 느껴지는 기도, 그리고 이어지는 설교 시간, 우리에게 익숙한 교회의 풍경이다.

그러나 김은광 목사와 백승유 목사가 공동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가교회'(김은광 목사, 백승유 목사 공동 목회)는 교회의 정체성이 잘 준비된 예배 공간과 시설에, 혹은 잘 갖춰진 예배의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 삼아 주셔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고 있다. 교회는 바른 말씀을 기초하여 머리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

2월 22일(주일) 오후 4시 우리가교회 예배 처소를 일러 에퀴티빌 빌

딩에서, 크랜셔와 올림픽 길로 이전하며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백승유 목사의 찬양 인도로 시작되어 박종호 장로 기도, 성경봉독(사무엘상 7:12, 창세기 22:14), 최형규 목사(생수의강선교교회) 설교, 남상권 목사(남가주 어노인팅교회) 권면, 고영문 목사(샘솟는교회), 최순환 목사(새교회) 격려사, 아룬 목사(현 미 윤군 군종) 축약영상, 백예슬 자매 특송, 김은광 목사 봉헌기도, 김은광 목사 광고, 찬양 우리가교회입니다, 최형규 목사 선포 순으로 진행됐다.

최형규 목사 설교 “에베에셀에서 여호와 이레로”

최형규 목사는 “에베에셀에서 여호와 이레로”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에베에셀’이라는 기념비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기 위해 모였던 ‘미스바’와 ‘날카로운 바위’라는 뜻의 ‘센’ 사이에 세워졌음을 언급하며, 은혜와 고난이 교차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 예배처소로 인도했다고 말했다.

“우리가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분명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예배 처소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 평강이 우리가교회 가운데 충만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

최 목사는 설교 중, 마크 러틀랜드(Mark Rutland) 목사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이 음성을 영혼들에게 들려주는 우리가교회가 되길 축원했다.

“마크 러틀랜드 목사님이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했다. 그 조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다. 1위는 ‘사랑합니다(I love you)’, 2위는 ‘당신을 용서합니다(I forgive you)’, 3번째는 ‘저녁이 준비됐다(Supper’s ready)’였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랄 때, 학교에서 성적을 잘 못 받았던,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간에, 엄마의 ‘밥 먹어라’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았고, 우리가 회사에서 힘들고, 세상 가운데 울분이 있고, 표현 못하는 나만의 눈물이 있을 때, 누군가가, ‘밥 먹으세요’ 그 한 마디에 내가 사랑 받는 존재라고 느낀다.”

주디 한 기자 → 2면에서 계속

소셜미디어 포르노화 10대 여성 청소년 겨냥

크리스천 데일리 인터내셔널(CDI)은 아일랜드 복음주의연맹이 소셜미디어와 성인 콘텐츠 산업이 10대 여성 청소년들을 겨냥해 성적 콘텐츠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의 SNS 연령 제한 강화 조치를 지지한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아일랜드 디지털 매체 ‘더 저널(The Journal)’에 게재된 기고문을 계기로 나왔다.

해당 기고문은 교사이자 연구자인 이오간 클리어리(Eoghan Cleary)가 작성했다. 그는 온라인 환경에서 성인 콘텐츠가 점차 일상화되며 다음 세대 소녀들에게 성 산업을 정상적 선택지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클리어리는 위클로 카운티 소재 중등학교 교사이자 성착취연구정책연구소(Sexual Exploitation Research and Policy Institute) 교육 전문가, 더블린 강간위기센터 이사도 활동하고 있다.

■ ‘bop house girls’ 트렌드와 10대 여성 청소년 노출 문제

클리어리는 수업 중 13세 여학생이 남학생뿐 아니라 여학생들도 포르노 영상 공유 플랫폼과 소셜미디어의 타깃이 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고 전했다. 학생은 ‘bop house girls’라는 트렌드를 언급했고, 이에 대해 조사가 나섰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용어가 플로리다의 한 저택에서 함께 거주하며 콘텐츠를 제작하는 젊은 여성 그룹을 지칭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틱톡에서 ‘겟레디 위드 미(Get Ready With Me)’ 영상이나 댄스, 메이크업 튜토리얼 등 10대 팔로워를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동시에, 유료 구독 플랫폼 OnlyFans에서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를 제작한다고 밝혔다.

클리어리는 로레알(L’Oreal)

계열 브랜드 어반 디케이(Urban Decay)의 ‘배틀 더 블랜드(Battle the Bland)’ 광고 캠페인도 사례로 언급했다. 해당 캠페인에는 OnlyFans 창작자인 아리 키트샤(Ari Kytsya)가 브랜드 홍보대사로 참여했다. 그는 49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틱톡을 통해 많은 10대에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클리어리는 이번 논란이 특정 인물을 비난하거나 성에 대한 보수적 입장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성인 콘텐츠와 연관된 창작자가 대형 뷰티 브랜드와 협업할 경우, 청소년층에서 해당 산업이 미화되거나 정상화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10대 소녀들의 피드가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를 홍보하는 창작자들로 채워지고 있으며, 일부는 18세가 되면 플랫폼에 가입하려고 권유하거나 수익을 공개적으로 언급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노출이 성 산업의 확장을 부추기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여학생 66% OnlyFans 가입 고려...아일랜드·영국 통계 제시

클리어리는 영국에서 실시된 최근 여론조사를 인용해 여학생의 66%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OnlyFans 가입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아일랜드에서는 16~18세 남학생의 86%가 포르노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이 중 65%는 최소 주 1회 이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아일랜드 복음주의연맹 대표 닉 파크(Nick Park)는 크리스천 데일리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에서 아일랜드 청소년, 특히 소녀들을 겨냥한 포르노 노출 문제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미경 기자 → 4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f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 / 부동산법 ■ 병크법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라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ADU 전문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Solar & Roof 집수리 일체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26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바로 상담해 보세요”
K-Urban Builders 213-310-1800
 K-Urban Like CSLB # 854389

태양광, 솔라!! * 전기세 50~90% 절감 *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무료 설치 서비스
 전가치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 해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합니다.
 정전에도 끄떡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의 **원가에 제공**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폴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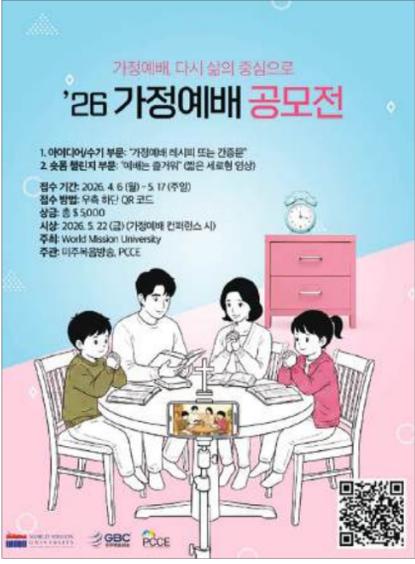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www.btssolardesign.com

 SCAN ME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텍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6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213.500.8000 | **213.798.2200**
 LA 2621 W. Olympic Blvd, #205 Los Angeles, CA 90006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당신의 가정예배 이야기가 누군가의 시작이 됩니다”



이민 가정의 신앙 회복과 다음 세대 신앙 전수를 돕기 위한 '2026 복음방송 가정예배 공모전'이 개최된다.

월드미션대학교가 주최하고, 복음방송과 PCCE가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가정예배, 다시 삶의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부모를 신앙 교육의 주체로 세우고, 이민 사회에 적합한 가정예배 모델을 발굴하여 보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모 분야는 ▲아이디어/수기 부문(가정예배 레시피 & 간증)과 ▲숏폼 챌린지 부문(주제: 예배는 즐거워)으로 나뉜다. 수기 부문인 '가정예배 레

피 & 간증'은 각 가정만의 예배 노하우나 은혜로운 간증을 글로 적어 제출하면 된다. 심사 기준은 다른 가정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재현 가능성'과 '진정성'에 중점을 둔다. 선정된 우수작들은 추후 한국 교회를 위한 '가정예배 가이드북'으로 제작되어 무료로 보급될 예정이다.

영상 부문인 '숏폼 챌린지'는 1분 이내의 짧은 영상을 통해 가정예배의 즐거움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찬양, 댄스, 성경 퀴즈, 가족 간의 재밌는 에피소드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으며, 가정예배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는 내용을 담으면 된다.

총상금 5,000달러이다. 이 금액은 가정예배 보급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영상 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수상자에게는 가정예배 보급 다뤄터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작품 접수는 4월 6일(월)부터 5월 17일(일)까지 진행되며, 수기 부문은 온라인 구글 폼(<https://forms.gle/vKiJo9ei8DRdTEvT8>)으로, 숏폼 영상은 이메일(pcce@wmu.edu)로 제출하면 된다.

주최 측은 공모전 기간 동안 복음방송 라디오 광고 및 3월 중 최윤정 교수가 출연하는 보이는 라디오, 5월 영상 아카데미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5월 22일(금) 동부사랑의교회에서 열리는 '가정예배 컨퍼런스' 현장에서 진행된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수상작 발표와 함께 이민 교회의 가정예배 정착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2026 가정예배 공모전〉
접수 : 4/6(월) - 5/17(주일)
심사 기간: 5/18(월) - 5/20(수)
시상식: 5월 22일(금) 장소: 동부 사랑의교회
문의: pcce@wmu.edu
접수 링크: <https://forms.gle/vKiJo9ei8DRdTEvT8> 문의: 714-446-6200, 714-446-600

제13회 청소년 정체성 찾기 효 글짓기 & 그림 공모전

대상 1학년~12학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효사랑선교회 (대표 김영찬 목사)가 제 13회 “효 글짓기 &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

효사랑 선교회에서는 매년 특별한 주제로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정하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심사를 통해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해 오고 있다. 작년에는 104명의 수상자 전원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한국계 미국인으로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분명한 정치인들이 직접

수여하는 상장과 함께 격려와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올해의 주제는 '나는 누구인가?'이며 부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다. 참가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이며, 선착순으로 100명까지 참가가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다.

시상식은 대상 2명(각 부분 1명씩), 최우수상 4명, 우수상 6명, 헤이븐상: 2명(11학년에 한함)이며, 심사위원장 상 4명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또, 각학년별 최고 상으로 글짓기 12명, 그림 12명 등



2025년도 청소년 정체성 찾기 효글짓기 그림 공모전 시상식.

학년별 총 24명에게 특별상을 수여한다. 참가자 전원에게 크리스

천 한인 정치인이 수여하는 상장이 수여된다.

남가주 지역 뿐만 아니라 미주 전 지역에서 참가할 수 있으며, 타주 청소년의 작품이 선정될 경우 상장과 상금도 집으로 배송한다. 시상식은 4월 25일(토) 오후 2시에 열린다.

효사랑선교회 웹사이트 (www.hyosarangusa.org)에서 QR코드로 참가 신청서에 접속할 수 있다.

그림은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하며,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714-670-8004, 562-833-5520로 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1면 기사 <우리가교회>에 이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힘들고 고통이 있을 때,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 네 상황이 어떻든지 너를 사랑한다” 하신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죄인임에도, 우리에게 ‘용서한다’ 하신다. 세상 가운데 지치고 낙심될 때 주님께서, ‘내 품으로 들어오라, 나와 함께 식사하며 위로 받고 회복하라’ 하신다.”

마지막으로, 최형규 목사는 “우리가교회에 이 세 음성 가운데 성도 간의 교제와 초대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며 부흥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 처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데에는, “이 장소 통해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이 있기 때문”이라며 설교를 마쳤다.

설교에 이어서 남상권 목사(남가주 어노인팅교회)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나는 꿈이 있습니다”를 인용해 권면했다.



최형규 목사, 남상권 목사, 고영문 목사, 최순환 목사가 우리가교회의 예배 처소 이전을 축하했다.

“우리가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 줄 믿는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교회를 통해 큰 꿈을 꾸고 큰 꿈을 이루는 것을 보고 싶다.”

고영문 목사는, “우리가교회가 날마다 축복받고 성장하여 남가주 지역의 수많은 심령들이 와서 치유 받고 회복되어 더 큰 성전으로 이전하길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최순환 목사는, 기독교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 교수가 분석한 서구교회의 네가지 단



계를 언급하며, 그 대안으로 ‘무브먼트’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격려했다. “드류 신학교 레너드 스위트 교수가 서구교회를 ‘4M’으로 구분하셨다. 선교하는 교회(mission), 사역하는 교회(ministry), 관리하는 교회(maintenance), 문제는 이때부터 교회의 생명력이 급속도로 줄어 든다고 한다.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 ‘M’을 소개하는데, 그 ‘M’은 뮤지엄이다.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에 안주하는 교회. 관리하는 게 전 부라고 생각하고 현상유지에만 몰



두하는 교회는 생명력과 역동성이 떨어진다. 곧 박물관으로 전락한다는 것이 이 미래학자의 발표였다.” “저는 이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 유럽교회, 미국교회 다 그 절을 밟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안이 있어야 한다. 선교로 시작한 교회, 사역에 전념하는 교회가 메인테넌스 교회를 피하고 박물관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한 대안이 무엇일까, 학자들은 대안으로 다른 ‘M’을 추가했다. ‘무브먼트’, 운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기도운동,



전도운동, 말씀운동, 영성운동, 성령운동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 “교회의 최고의 운동은 무엇일까? 저는 단언할 수 있다. 그것은 개척이다. 개척 운동이 교회를 살린다. 개척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내 영혼을 살리고 이 도시를 살려낸다.” 아론 목사의 영상 축사가 이어졌으며, 백예슬 자매가 ‘천년을 불러도’를 특송으로 불렀다. 이날 ‘우리가교회입니다’ 찬양에 이어 최형규 목사의 축도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쳤다.

Andrew Kim (Attorney)

로스앤젤레스 해방 프로젝트 2026

(Project Liberation of LA 2026)

- 첫째, 우리 기업들을 해방시키겠습니다. (Liberate Our Business)
- 둘째, 우리 마을을 해방시키겠습니다. (Liberate Our Neighborhood)
- 셋째, 우리의 노인들을 해방시키겠습니다. (Liberate Our Senior Citizens)
- 넷째, 우리 도시의 노숙자 문제를 해방하겠습니다. (Liberate Our Homeless Population)
- 다섯째, 시청을 해방시키겠습니다. (Liberate City Hall)
- 여섯째, 우리의 아이들을 해방시키겠습니다. (Liberate Our Kids)
- 일곱째, 우리의 미국 역사를 해방시키겠습니다. (Liberate Our American History)

for LA Mayor **엘에이 시장후보**

6월 2일

프라이머리 투표일

Make Los Angeles Great Again

Restore LA

Unite LA!

Andrew Kim
for LA Mayor

교협 2월 연합기도 “기도는 주님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것”

남가주교협(회장 김은목 목사) 2월 연합 기도성회가 22일 오후 4시 평화교회에서 열려 성도들이 나라와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집회는 찬양과 말씀, 성경봉독, 합심기도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김은목 목사가 설교를 전했다.



남가주교협이 주최한 연합 기도성회가 22일(주일) 평화교회에서 개최되었다. ©기독일보

예배는 박기덕 목사의 개회기도로 시작됐고, 권영신 장로가 성경봉독(사도행전 12:14-17)을 맡았다. 이후 특별기도 순서에서는 ▲양명숙 목사가 신앙회복을 위해 ▲송금관 목사가 성경적 세계관 회복을 위해 ▲샘신 목사가 교회와 교협의 회복을 위해 ▲양시은 목사가 한국과 미국을 위해 ▲조유연 장로가 사명회복을 위해 각각 기도했다.

김은목 목사는 설교에서 신앙의 본질은 형식이나 경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앙이 오래되었다고, 직분이 있다고 해서 익숙해지

면 안 된다”며 “내가 잘난 척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다. 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하며, 그럴 때 우리의 자세도 하나님께 가까워진다”고 했다.

또한 그는 계시록의 말씀을 언급

하며 첫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김 목사는 “신앙생활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한 발자국 내딛는 것”이라며 “내가 한 걸음 나아가면 주님은 아흔아홉 걸음을 달려오신다. 이것

이 신앙의 신비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깨달음이 결단을 낳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베드로의 육중 석방 사건을 통해 기도의 능력을 설명했다. 김 목사는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기

도하고 있었지만 응답이 이루어졌음에도 믿지 못했다”며 “기도하면 서도 믿지 않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기도는 신앙의 핵심이며,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기도를 ‘영혼의 호흡’으로 표현하며 기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다”며 “기도는 우리의 가치관을 지키고 믿음을 살리는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뜻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목사는 “기도에는 반드시 믿음이 함께해야 한다”며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다. 봉헌 기도 및 축도는 최학량 목사(교협 증경회장단 회장)가 했다.

토마스 멩 기자

나눔On 희망On 감동의 막 올려!

2026년 '박해받는 세계 교회를 위한 나눔On 희망On자선 콘서트' "자유를 선포하라"(Proclaim Freedom)가 2월 20일(금) 저녁 7시 30분, 감사한인교회(구봉주 목사)에서 첫 막을 올렸다. 금요일 저녁 트래픽에도 많은 성도들이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자리를 가득 채웠다.

이날 콘서트는 감사한인교회 사랑성가대의 찬양으로 문을 열었다. 구봉주 사의 환영 인사와 기도에 이어, 남성 4중창 가스펠 보컬 팀 크룩스(CRUX)가 힘찬 찬양 "온 세상 위하여"로 콘서트의 시작을 알렸다.

어둠 속의 빛-박해 현장의 목소리

콘서트 1부에서는 중국 시온교회의 에스라진(왕이) 목사와 수감 중인 17명의 지도자들을 위한 안나 류 사모님의 기도 요청 영상이 상영되었다. 이어 파키스탄 자란왈라 지역에서 무슬림에 의해 발생한 대규모 폭동과 방화

사건과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교회들에 위한 중보 요청 영상이 이어졌다. 크룩스는 "나는 비록 약하나,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같은 찬양으로 박해받는 교회들에 소망을 전했다.

크룩스 리더 전병곤 교수는 "우리는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으나 세상에는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다"며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요청했다.

결단과 헌신의 찬양, 연합의 기도

2부에서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웁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나의 갈다가도록", "부름받아 나신 이 몸" 등을 찬양하며 박해받는 교회들을 위해 마음을 모았다.

미주복음방송 이영선 사장은 마음과 물질로 박해 받는 교회들을 돕기를 당부했다.

이어 이세영 부사장이 중국 시온교회와 파키스탄 자란왈라 지역의 교회들, 이민교회 다음세대를 위한 중보기도 시간을 이끌었다.



2026년 '박해받는 세계 교회를 위한 나눔On 희망On자선콘서트. © GBC

마지막 순서로, 크룩스가 감사한인교회 성가대와 함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부르며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다. 마지막 앵콜 무대에서는 크룩스 팀이 감사한인교회 구봉주 목사와 김영길 원로목사를 깜짝 초청해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뜻밖의 장면이 연출되

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성도들의 모금함을 향한 나눔의 손길이 끊없이 이어졌다.

나눔On 희망On 콘서트 일정
2/27(금) 7:30 PM 복음장로교회
2/28(토) 6:00 PM 한길교회
3/1(일) 6:00 PM 베델교회



미주평안교회 송순애 사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다

미주평안교회 송정명 원로목사의 아내인 송순애 사모가 지난 2월 24일(화) 새벽 3시 5분경, 향년 74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1951년 5월 18일 출생한 고(故) 송순애 사모는 1974년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했다. 1975년 6월 송정명 목사와 결혼 후 같은 해도 미하였으며, 미주 복음화를 위한 헌신적인 삶을 시작했다. 고인은 1989

년 11월 송 목사가 미주평안교회 제3대 담임목사로 부임한 이래,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랑과 기도로 성도들을 돌보며 헌신해 왔다. 특히 송 목사가 40년 성역을 마무리하고 2013년 8월 원로목사로 추대되기까지, 묵묵히 내조하며 미주평안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끈 신앙의 동반자였다.

고인은 생전 암 투병 중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성가대

에서 찬양하는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의 발자취를 남겼다.

미주평안교회(박병열 담임목사) 측은 "고인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 신앙의 발자취를 기리기 위해 장례를 교회장으로 거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천국환송예배는 오는 3월 14일(토) 오전 10시, 미주평안교회 본당에서 엄수될 예정이다.

제 13 회

미주청소년 정체성 찾기

효 글짓기 & 그림 공모전

"Hyo(Filial Piety)" Writing & Art Contest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가족과 가정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에 있음을 배우고자 "효 글짓기 & 그림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접수기간 2026.3.10(화) ~ 3.31(화)

공모주제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부주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What I love (the) most'

공모전 개요
공모대상: 1학년 ~ 12학년

접수방법
접수시 참가 학생이름, 학년, 전화번호, 이메일을 꼭 기입해 주세요. (필수)

참가부분	
글짓기	온라인,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그림	우편, 방문 접수만 가능 / 온라인, 이메일 접수 불가 (그림에 대한 설명을 5줄 이내로 적어 주세요.)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QR 코드 사용 (홈페이지 : www.hyosarangus.org) (지정된 내용은 효사랑 선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우편, 방문접수 7342 Orangethorpe Ave, Ste B-113 Buena Park, CA 90621

이메일 hyosarangus@gmail.com

참가비 (\$20 / Per Work)
CHECK Payable to Hyosarangus Mission
VENMO Hyosarangus Mission
ZELLE 5628335520 (Hyosarangus Mission)
> CHECK, VENMO 로 지불시 학생이름, 학년 꼭 적어 주세요.

시상내역 (참가학생 전원에게 상장과 정지인 상 수여)

훈격	상금	시상인원
대상	\$500	2명 (글짓기, 그림 각 부분 1명)
최우수상	\$300	4명 (글짓기, 그림 각 부분 2명)
우수상	\$200	6명 (글짓기, 그림 각 부분 3명)
헤이븐장학상		2명 (11학년 학생에 한해서 수상)
심사위원상		4명 (글짓기, 그림 각 부분 2명)
최고상		24명 (글짓기, 그림 각 부분 1명)

시상식 날짜 및 장소 : 2026.4.25 (토) 2:00 PM (장소는 추후 공지)

문의전화
효사랑 선교회 714-670-8004 / 562-833-5520

주최 | **효사랑** **효사랑선교회** **Hyosarangus Mission** 후원 |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Orange County

HAVEN openbank

CALIFORNIA STATE SENATOR
DR. STEVEN CHOI

Young Kim
U.S. CONGRESS

Sharon Quirk-Silva
CALIFORNIA SENATOR

베데스다대학교, 봄학기 첫 채플 및 창립자의 날 기념예배

애나하임 베데스다대학교(총장 고경환 박사)가 17일 정오 캠퍼스에서 2026년 봄학기 첫 채플이자 창립자의 날 기념예배를 드렸다.

이날 행사는 교수·직원 회의를 시작으로 창립자의 날 채플, 학생 교제 및 점심 순으로 진행되며 학교의 설립 정신과 세계 선교 비전을 재확인했다. 채플은 엘리야 카마레나의 환영 인사와 워십팀 및 최영진 교수의 찬양으로 시작됐다. 이어 고경환 총장이 학교 설립자 조용기 목사의 생일을 기념하며 메시지를 전했다.

고 총장은 “우리는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다. 우리 학교는 지금도 좋은 학교이지만 앞으로 훨씬 더 좋은 학교가 되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 세계 2만 4천 회원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베데스다대학교가 2026년 봄학기 첫 채플이자 창립자 기념예배를 드렸다. © 기독교일보

로 축복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기도에서 고 총장은 “하나님께서 조용기 목사를 통해 베데스다대학교를 세우셨다. 설립자께서 품으셨던 꿈을 우리 모두가 합

께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학

교가 설립자의 비전을 계승해 세계 선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기관이 되도록 헌신할 것을 강조했다. 최상준 교수는 “창립자 조용기

박사와 베데스다대학교의 역사”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설립자의 생애와 사역을 소개했다. 그는 “조용기 목사는 절망과 환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고 말했다. 또한 “1953년 한국전쟁 직후 천막 교회에서 시작해 영적인 양식을 나누며 사역을 펼쳤고, 결국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교회를 세우게 됐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희망은 우리의 생명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소망을 나누자”고 강조했다.

베데스다대학교는 1976년 오순절 신학에 기초한 기독교 교육 기관으로 설립됐으며, 전 세계 교회와 성경 기관을 세우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는 21세기에도 하나님 예배와 선교에 헌신된 기독교 지도자와 전문인을 배출하는 글로벌 교육 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겠다는 비전을 밝히고 있다. 토마스 멩 기자

남가주은총교회 서정희 목사 임직 예배 거행

2월 22일 오후 1시 30분, 캘리포니아 풀러턴 소재 남가주은총교회(서정희 목사)에서 서정희 목사의 임직 예배가 거행되었다. 미주독립교회연합(대표 류당열 목사)의 주관으로 열린 이날 예배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남가주 노회의 주요 인사들과 성도들이 함께해 새로운 사역의 출발을 축하했다.

서정희 목사의 사역은 홀사모를 중심으로 한 성경공부와 기도 모임의 교제에서 시작되었다.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세워가던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는 ‘남가주은총교회’의 창립을 적극적으로 인도하셨다. 현재 서 목사가 매주 인도하는 온라인 성경공부 모임에는 100여 명의 인원이 참여하며 영적 회복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예배는 류당열 목사의 인도로 김영배 목사(대신 남가주 노회 중경 노회장)가 대표 기도를 맡았다. 류 목사는 하박국 3장 19절을 본문으로 한 ‘주 여호와와 나의 힘 이시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역자의 삶을 강조했다. 설교 이후 임직식에서는 서약과



남가주은총교회에서 서정희 목사의 임직예배가 거행됐다. © 기독교일보

안수례, 목사 성의 착의식이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집례를 맡은 류당열 목사는 서정희 목사가 목사 되었음을 공포했다. 이날 순서에는 서정희 목사의 임직과 더불어 선교사 임명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어 최야곱 목사(대신 남가주 노회 노회장)의 권면, 김창현 목사(미주대한 신학대학·대학원 5대 총장)와 김영배 목사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남가주은총교회 찬양팀의 축가로 기쁨을 나눈 예배는 신임 서정희 목사의 첫 축도로 마무리되었다.

서정희 목사는 임직 인사에서 “사람을 세우는 일이 곧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고 믿는다”며, “앞으로도 상처 입은 영혼들을 돌보고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이 교회가 단순한 지역 교회를 넘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특별한 사명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한다”고 간절한 비전을 밝혔다.

한편, 이날 안수 위원으로는 류당열 목사, 김창현 목사, 김영배 목사, 최야곱 목사가 참여하여 서 목사의 새로운 앞날을 축복했다.

→ 1면 기사 <소셜미디어 포르노화>에 이어서 파크는 최근 보고서에서 소셜미디어 기업의 관리 실패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실질적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 SNS 연령 인증 강화 촉구...교회와 부모 역할 강조

닉 파크는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소셜미디어 연령 인증 및 접근 제한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일랜드 내 기독교 공동체는 학교에서 진행되는 성교육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해 왔다고

전했다. 그는 부모와 교회, 학교가 동의 교육과 온라인 안전 문제에 대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크는 기독교인들이 성 윤리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 도덕성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삶 전반에 걸친 기록과 절제를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OnlyFans 측은 더 저널에 모든 창작자가 18세 이상임을 확인하는 강력한 연령 인증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레알 측은 관련 질의에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손흥민이 속한 LAFC는 리오넬 메시가 주장으로 있는 인터 마이애미를 3-0으로 완파했다. © 이지연 객원기자

아버지 밥상교회(홍리스미션)
 Jesus Saves
 Fathers Table Mission
 아버지 밥상교회의 후원
 홍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
 34191 Harvard rd Newberry springs ca 92384

(주)대원 전자동 시설로 만든 왕김밥 4종
 새우튀김 김밥 / 매운 오징어 김밥 / 참치 김밥 / 야채 김밥
교회 스페셜 무료 딜리버리
 10pcs 한줄 \$4.50 60줄 이상 주문가격
주문의 949-330-9033

2026 NICHÉ BEST SCHOOLS

TRUSTED SCHOOL IN TOWN

EDUCATE ENABLE EQUIP

K-12 PRIVATE CHRISTIAN SCHOOL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Upper Campus
 221 S. Juanita Avenue, Los Angeles, CA 90004 Lower Campus

CONTACT US!
 (213) 487-5437
 ncahuskies.org

3.1절

독립의 정신을 이어가며
한인 사회의 건강을 지켜온 이름



 **센터메디컬그룹**

888-847-3098

센터메디컬그룹은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 의료 메디컬그룹 (IPA) 입니다.

젊은 찬양 리더, 최신곡 위주 선곡? 기성 세대 구경꾼 전략

최연숙 박사 “예배 음악, 기술적 세련미보다 신학적 토대 회복 먼저”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회장 임도균 교수) 제17차 신학포럼이 2월 23일 오전 수원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설교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최연숙 박사(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Ph.D., 실천신학)가 ‘한국교회 주일 예배 내 세대 간 신앙 전수와 통합을 위한 음악 사역의 기능연구’를 제목으로 발표했다. 그는 세대 분리 예배가 제도화로 신앙 공동체의 유기적 일체성과 세대 간 신앙 형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에서 ‘세대 통합 공동체 예배’ 구현을 위한 성경적 예전과 음악사역의 역할을 제안했다.

최 박사는 “교회 예배는 본질적으로 세대 통합적성격을 지녀야 한다. 예배는 특정 연령 집단의 문화적 표현이나 정서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사적 경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언약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공적 행위이기 때문”이라며 “세대 통합 예배는 단순한 세대 간 공존 전략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론적 정체성과 직결된 신학적 요청이다. 세대가 함께 예배할 때 신앙



▲기념촬영 모습. ©복음주의실천신학회

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 있는 전통으로 전달되며, 교회는 시간과 세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형성된다”고 밝혔다.

‘유기체로서 교회 공동체 예배’ 구성 요소 4가지로 ACTS, 즉 모임의 의미를 한층 심화시키는 ‘경배(Adoration)’, 말씀과 성찬에 대한 공동체의 응답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고백(Confession)’과 ‘감사(Thanksgiving)’, 예배 안에서 받은 은혜를 일상의 삶과 증언으로 연결하는 ‘파송(Sending)’을 제시했다.

이는 예배학자 로버트 웨버(Robert E. Webber, 1933-2007)가 초기 교회의 전통과 성서적 원

리(행 2:42; 눅 24장)에 기초해 제시한 ‘예배의 4중 구조(The Four-Fold Pattern of Worship)’와 신학적 토대를 공유한다. 그는 돔 그레고리 디스(Dom Gregory Dix, 1901-1952)의 예전 연구와 성공회 기도서 전통을 계승해, 모임(Gathering)과 말씀(Word), 성찬(Table), 파송(Sending) 등 4가지 핵심 국면으로 정리한 바 있다.

이후에는 예배 음악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구했다. 최연숙 박사는 “한국교회 예배 음악은 시대 변화에 따라 다양한 음악 문화를 수용하며 외형적 확장을 이뤄 왔으나, 급격한 문화 전환 속에서 예배 음악이

공동체의 신앙 정체성과 전례적 질서를 어떻게 보존하고 형성해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예배 음악은 개인의 예술적 취향이나 정서적 위안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몸으로 응답하도록 돕는 전례적 언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회 예배 음악의 주요 양상들에 대해 먼저 “예배 음악에서 나타나는 신학적 정체성의 혼란은 ACTS의 출발점인 경배(Adoration)를 근본적으로 위태롭게 만든다”며 “현대 한국교회 예배 음악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구속의 역사를 선포하기보다, 예배자의 내면적 위로나 정서적 고양을 중심에 두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예배의 주도권이 계시의 주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감정을 경험하는 인간에게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둘째로 “음악 지상주의는 유기체 교회 안에서 회중이 감당해야 할 능동적 제사장 직무를 심각하게 약화시킨다. 현대 예배는 대형 음향 장비와 대중적 악기, 찬양 인도자의 과도한 부각 등으로, 회중을 수동적 관객으로 전락시키는 경향을 보인다”며 “이럴 경우 예배는 하나

님 중심이 아닌, 소비자인 회중의 감성을 만족시키는 엔터테인먼트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셋째로 “세대 간 음악적 분열은 공동체가 한 몸으로 결속되는 것을 결정적으로 방해한다. 기성 세대와 다음 세대가 선호하는 음악 스타일 차이가, 전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중요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기성 세대는 비교적 단순한 리듬과 느린 템포,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같은 복음적 내용이 명확한 곡을 선호하는 반면, 다음 세대는 빠른 템포와 강한 비트의 경쾌한 음악을 선호하고 가사보다 감각적 분위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연숙 박사는 “취향이 예배의 기준으로 작동할 때, 공동체는 더 이상 함께 노래할 공통의 신앙 언어를 유지하지 못한다. 서로 다른 노래를 부르는 공동체는 유기적 연합을 상실한 채, 파편화된 개인들의 집합으로 전락할 위험에 놓인다”며 “모든 세대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신학적으로 견고한 가사와 보편적 음악 질서를 회복하는 일은 한국교회가 시급히 감당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대웅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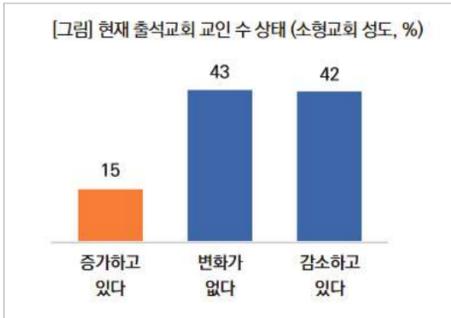
성장하는 소형교회 15%... “관계 · 비전 · 공동체성이 관건”

소형교회의 약 15%가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세 속에서도 관계와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한 ‘작지만 강한 교회’ 모델이 소형교회의 중요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목데연)가 24일 발표한 ‘소형교회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출석 교회의 교인 수 변화에 대해 ‘증가하고 있다’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반면 ‘감소’ 42%, ‘변화 없음’ 43%로, 전체의 85%가 정체 또는 감소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도들이 현재 교회에 출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족이나 지인이 다녀서’(22%)로 나타났다. 이어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17%), ‘교회가 지향하는 가치가 좋아서’(14%), ‘거리가 가까워서’(13%), ‘교인들의 따뜻한 분위기’(11%) 순이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출석 동기의 차이가 교회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가족·거리 등 외



© 목회데이터연구소

적 이유로 출석한 성도는 이탈의 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교회의 가치나 공동체 분위기에 매력을 느낀 경우 이탈 의향이 낮았다.

또한 교인 수가 증가하는 교회의 경우, 출석 이유로 ‘신앙 성장’ 요인을 더 많이 선택해, 영적 성장 환경이 교회 성장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소형교회 성도의 전체 만족도는 52%(평균 3.6점)로 보통 수준이었다. 하지만 교인 수가 증가하는 교회의 경우 만족도가 73%로 크게

높았다.

성도들이 꼽은 만족 요인은 △교회의 분명한 비전과 방향성(39%) △목회자의 설교(37%) △교인 간 친밀한 교제(35%)로 나타났다. 특히 성장하는 교회에서는 ‘비전’ 요소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소그룹 활동 참여자’(70%)와 ‘제자훈련이 있는 교회’(65%)에서 만족도가 높아, 관계 중심의 양육 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도들이 체감하는 소형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성도 간

가족적 분위기’(68%)였다. 이어 ‘담당목사의 관심과 돌봄’(38%), ‘밀도 있는 성경공부와 신앙훈련’(23%), ‘사역 참여 기회와 의사결정 참여’(19%) 등이 뒤를 이었다.

목데연은 이러한 요소들이 성도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관계 기반 안전망’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성장하는 교회에서는 신앙훈련 요소가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났다.

한편 성도 28%는 교회를 떠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주요 이유는 △설교 불만(25%) △헌금 부

담(22%) △봉사 부담(19%) △관계에서의 소외감(19%)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그룹 참여자와 제자훈련 경험자는 이탈 의향이 크게 낮아, 공동체적 연결이 교회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소형교회가 강화해야 할 과제로는 △은혜로운 예배(26%) △전도 활성화(25%) △성도 간 진실한 관계 형성(17%) △성경교육·제자훈련 강화(13%) 등이 제시됐다. 특히 성장하는 교회에서는 제자훈련 강화의 필요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김진영 기자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고승희, 김영길, 김중연, 김한우, 류종길, 민중기, 박기호, 송정명, 신성욱, 이상명, 이종훈, 임성진, 정우성, 진유철, 한기홍

자문위원: 강태광, 고광선, 고창현, 구경모, 구봉주, 국윤권, 김종규, 류용렬, 박은성, 박일서, 오명환, 우영화, 최현규, 한현중, 써니킴

발행인: 이인규 | 이사장: 폴킴
 편집국장: 맹창현
 고문변호사: 정찬용
 지사: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213) 739-0403
 E-mail: chdaily@la@gmail.com
 주소: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커피와 예술이 만나는 공간!

Cafe du Gallery & E.K. Art Gallery

1. 말차 라떼-K-스타일 빙수와 함께 즐기는 전시 감상!
2. 넓고 시원한 공간, 식물과 예술이 어우러진 감각적 카페!
3. LA 코리아타운 한복판에서 즐기는 예술 같은 휴식!
4. 작업하기 좋은 와이파이·주차 가능·친절한 서비스!

CAFE du GALLERY

영/업/시/간 월~토: 9AM~7PM(일요일 휴무)

E.K. ART GALLERY 문의: 323-272-3399
<http://www.ek-artgallery.com/>
 1123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www.cafedugallery.net

당신께 맞는 의사, 찾는 병원

모두 SMG에 있습니다

5,500명의 전문 의사와 다양한 병원 네트워크와 함께
당신의 건강을 지켜 드립니다

18개 연계 대형 병원

- UCLA
- 시더스-사이나이
- 할리우드 장로병원
- 세인트 주드
- 세인트 조셉
- 애너하임 리저널
- PIH 굿사마리탄 외

문의전화 _____

800.611.9862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카카오톡 채널에
방문하세요!

홍보대사 **고두심**



이 광고에서 사용된 지표는 SMG가 2025년에 남가주 지역의 한인 주치의와 전문의 네트워크 규모에 대해 조사한 내부데이터에 기반한 것입니다. 서울메디칼그룹은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다양한 건강보험과 함께 독립된 의사 네트워크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혜택과 네트워크 규모는 각각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헬스 플랜과 지역에 따라 다양합니다. 의료 서비스는 건강보험에 따라 제한, 제외, 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메디칼그룹 800-611-9862로 문의하십시오.

지역교회 활성화를 위한 소그룹 사역 프로젝트

소그룹

교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라!

🎁 세미나 참석교회 특전

- ✓ 15개교회 선정 후 \$3,000 지원
- ✓ 목회현장 소그룹 노하우 공유
- ✓ 소그룹 리더 훈련 지원 프로그램 지원

-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소그룹!**
- 침체된 교회를 다시 움직이게 한 실제 목회 현장의 **전략!**
- 지금, 교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십시오!



유경재 목사



이수호 목사

강사: 유경재 목사 (나성북부교회 담임)

소그룹 중심 목회사역의 실제

강사: 이수호 목사 (올림픽장로교회 담임)

말씀중심 소그룹 구조와 실제적용 사례

2026.3.23(월) 오전 10시~오후 2시

- 장 소: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 대 상: 담임목사, 목사, 소그룹 리더
- 등록비: 무료, 점심제공, QR 코드 스캔 후 등록
- 문 의: 전화번호 213-434-1170

무료공개세미나



지금 등록하세요!

공동주최: 기독교일보, 월드미션대학교 소그룹사역센터

우간다서 개종 이유로 아들 살해 기독교 개종 갈등 비극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우간다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아들이 아버지가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고 19일 보도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 사건은 기독교 개종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 속에서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으며, 우간다 내 기독교 박해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동부 우간다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기독교로 개종한 남성이 이슬람 신자인 아버지에게 흉기로 공격을 받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네 자녀의 아버지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유가족은 종교적 이유에 따른 계획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우간다 기독교 개종 사건 경위...가족 방문 이후 벌어진 살해 사건

현지 관계자와 유가족 증언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월 28일 우간다 이강가(Iganga) 지역 인근에서 발생했다. 부탈레자 지역에 거주하던 62세 남성 함바 아함마다(Hamba Ahammada)는 자신의 아들 함바 주마(Hamba Juma)를 현지에서 흔히 사용하는 긴 칼인 '팡가(panga)'로 공격해 숨지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아내 난고비 마리아티(Nangobi Mariati)는 당시 상황에 대해 남편과 함께 논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했을 때 시아버지가 집에 와 있었다고 밝혔다. 가족은 함께 식사를 준비해 저녁까지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마리아티는 사건 당일 저녁 식사 후 시아버지가 손자에게서 흉기를 건네받았으며 이후 피해자를 불러 공격했다고 진술했다. 그녀는 남편이 아버지의 부름을 듣고 문제가 생긴 것으로 생각해 다가갔으나 곧바로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공격 이후 가해자는 현장에서 사라졌으며 주민들이 수색에 나섰다지만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한 이웃 주민은 사건 직후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현장을 벗어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해, 범행이 사전에 계획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2세, 10세, 7세, 3세 등 네 자녀를 둔 가장이었다.

기독교 개종 이유 갈등...유가족 “종교 떠났다는 이유로 위협 받아”

유가족은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피해자의 기독교 개종이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와 그의 아내는 이전에 이슬람 신앙을 갖고 있었으나 기독교로 개종했으며, 이후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지속적인 비난과 위협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마리아티는 시아버지와 일부 가족들이 이슬람을 떠난 데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왔으며 가족 전체를 살해하겠다는 위협까지 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갈등이 장기간 이어지던 중 결국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현지 경찰은 사건과 관련한 공식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유가족은 신속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우간다 기독교 박해 사례 증가...종교 자유 보장에도 갈등 지속

CDI는 이번 사건은 최근 보고되고 있는 우간다 내 기독교 박해 사례 중 하나로 지목됐다고 밝혔다. 현지 인권단체와 선교 관련 매체들은 개종을 둘러싼 가족 및 지역사회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전했다.

우간다 헌법과 관련 법률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며 개인이 신앙을 전파하거나 종교를 변경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종교적 갈등과 사회적 압박이 여전히 존재하며 개종자들이 위협과 차별을 겪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간다 동부 지역에는 무슬림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종교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전체 인구 중 무슬림 비율은 약 12% 수준으로 추산된다.

최승연 기자

이란 기독교인 체포와 구금 전년대비 약 2배 급증



▲자유를 상징하는 이란의 아자디 탑. ©Pixabay/MladoZg

이란 당국이 2025년 한 해 동안 254명의 기독교인을 신앙 또는 종교 활동과 관련된 혐의로 체포했다. 이는 전년도 139명에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아티클18(Article 18), 오픈도어(Open Doors), 국제기독교연대(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미들이스트콘션(Middle East Concern)이 2월 19일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에서 지난해 투옥·망명·강제노동을 경험한 기독교인도 57명으로, 전년도 25명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희생양: 이란 내 기독교인에 대한 권리 침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2025년 말 이슬람 공화국 지도부 종식을 요구하는 시위와 그에 대한 폭력적 대응을 언급한다. 수천 명이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으며, 기독교인을 포함한 모든 이란인이 피해를 입었다. 개정된 형법 제500조는 ‘이슬람의 신성한 종교에 반하는 선전’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독교인들에 대한 구금과 형량이 강화되는 추세다. 2025년 말 기준 43명이 여전히 복역 중이며, 최소 16명은 재판 전 구금 상태에 있다. 총 형량은 280년으로, 2024년(263년)보다 늘었다.

특히 당국은 2025년 최소 11명에게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했으며, 총 9년의 망명 기간과 249년에 달하는 건강·고용·교육 관련 권리 박탈을 명령했다. 6월 ‘12일 전쟁’ 이후 새 간첩법을 도입하면서 기독교인 5명을 기소해 40년 이상의 징역형

을 선고했다.

보고서는 “기독교인 체포가 전쟁 이후 급증했다”고 지적하며, 이란 정보부가 복음주의 기독교인을 ‘훈련된 요원’으로 규정해 53명을 무력화했다고 발표한 사실을 언급했다. 또한 성경과 기독교 문헌이 압수되고, 개종자들이 ‘이슬람 신앙 복귀’를 명목으로 ‘컬트 치료 클리닉’에 강제 이송된 사례도 보고됐다.

수감자들은 의료 거부, 심리적 고문, 구타 등 심각한 학대를 겪었으며, 임신한 개종자가 국제 여성의 날에 16년형을 선고 받은 사건, 독방 수감 중 뇌졸중을 겪은 사례, 척추 골절과 감염으로 고통받은 사례 등도 있었다.

성경 배포에 관여한 기독교인들도 지속적으로 표적이 됐으며, 최소 21명이 징역형과 함께 벌금·추방·사회적 권리 박탈을 선고받았다. 보고서는 1990년부터 ‘임시 폐쇄’ 상태인 성서공회의 재개방을 촉구하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 제18조에 따른 종교 자유 보장을 국제사회가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영 매체는 체포된 기독교인들이 튀르키예 집회에 참석한 영상을 공개하고 성경 밀반입 의혹을 보도했다. 또한 혁명수비대가 체포에 점점 더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해외 신학 세미나 참석 등 기독교인의 활동을 감시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이미경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섬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 토-일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회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 606-2345, (424) 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세부터) 새벽예배 (월-토) 오전 5시
3부예배(사순절) 오전 11:30 (화-토) - 오전 6:0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종보기도회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1세대)을 섬기며, 선교를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gan 코너)
T. (213) 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일예배와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청소년예배 오전 10:50 토요일전사별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 새를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분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분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C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8 수요종보기도회 오전 10:00 분당

CMC 종교대학 오전 11:30 교육관 4층
CMC 소양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 466-1234 Email: omcco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삼위일체와 친밀하고 화목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 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교회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사랑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라티노 오후 5: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온라인

김형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교회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 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 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일예배 새벽 6:30
EM 주일예배 오전 10:30

한현중 담임목사

LA장로교회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국교회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심사기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블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김은광 목사 백승유 목사

우리가교회
성도된 우리가 교회입니다

1060 Crenshaw Blvd(2F), L.A, CA 90019
T. (323) 610-6989, www.woorigachurch.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유초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 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형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3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윤성현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김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가명훈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장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c.org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방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세리투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정유성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일찬양회 7:30pm
 주일3부예배 11:15am 토요일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org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헌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미대학장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이우호 담임목사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밸리구구재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구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지영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림학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회 오전 9:30(목)
 제자훈련 오전 9:30(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김한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00 성령 영회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말론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8
 T. (949) 854-4010 / F. (949) 854-4012

박신웅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C대학원부 오후 2:30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9:15 토요일성경인사이드 오전 5:30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당만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박훈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김종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월/수/금) (토/주일) 새벽 6:00
 (월/수/금) (토/주일) 새벽 6:00

오렌지카운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주혁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신용환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교회학교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영아유치부, 원동부,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월-금 오전 6:0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00
 토요일예배 월-금 오전 6:0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매달 마지막 금요일)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LA 동부 지역

우영담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집회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구경모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최원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월-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622-2324, F. (909)622-1480 / inlandchurch.org

기독교 지도자들이 몰락하는 7가지 원인



©Unsplash/Joshua Earle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북쪽에 위치한 랭커스터의 웨스트사이드 크리스천 펠로우십 교회의 설립자이자 담임인 세인 아이들먼 목사가 '기독교 지도자들이 몰락하는 7가지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CP)에 글을 게재했다.

스릴 때 삶의 순결로 드러난다.

성경에서 가장 자주 강조되는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다. 거룩은 원수의 공격을 막는 중요한 방패다(에베소서 6:14). 그러나 거룩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깨어짐과 겸손에서 나와야 한다. 거룩에 대한 낮은 인식은 도덕성을 무너뜨린다. 오늘날 미디어가 거룩의 쇠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있다.

4. 이성과의 건강하지 못한 관계
 이 영역에서는 특별한 경계와 책임 장치가 필요하다. 마귀는 부적절한 관계가 가져올 고통과 후회를 보여주지 않고, 단지 "똥고 있을 뿐"이라는 거짓 자유를 속삭인다.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끌린다면 즉시 환경에서 벗어나야 한다. 간음은 작은 타협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한 번에 큰 죄로 떨어지기보다 작은 타협과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다 결국 바닥에 이른다. 성적 욕망과 싸우거나 즐기지 말고 피하라(고린도전서 6:18).

아이들먼 목사는 "왜 그들은 넘어지는가? 그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이유와 같다. 우리 각 사람은 자신의 악한 욕망에 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 욕망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죄로 이어진다(야고보서 1:14-15). 죄에는 생명 주기가 있어 우리가 그것을 먹이느냐 굶기느냐에 따라 자라기도 하고 시들기도 한다"며 죄가 들어오는 방식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1. "나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0:12는 우리가 굳게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잠언 16:18). 교만은 "나는 간음한 적 없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 그렇지 않았지만, 나도 그럴 수 있다"고 말한다.

5. 약한 부분을 강화하지 않는다.
 삶의 압박은 우리를 잘못된 방식의 만족으로 이끈다. 약점(중독, 분노, 관계 문제 등)은 원수가 공격하기 좋은 지점이다. 회개와 보호 장치를 통해 이런 영역을 드러내야 한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진정한 강함이 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고린도후서 12:10). 교만은 타협과 어리석은 결정을 부르고 양심의 소리를 무시한다. 양심의 소리는 항상 강한 경고가 아니라 마음속의 조용한 음성일 때도 많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인내를 하나님의 승인으로 착각한다. 스피전은 "우리가 겸손하다고 생각할 때 가장 교만해질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6. 책임(accountability)이 무너진다.
 책임 구조는 보호 장치지만 완벽하지는 않다. 무엇보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한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 부분에서 힘들다. 기도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 건 강하다. 원수는 어둠 속에서 일하기를 좋아한다. 영향력이 클수록 책임도 더 필요하다.

2. "나는 너무 바쁘다."
 우리는 하나님을 뒤로 미루고 사역을 앞세우기 쉽다.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기도 생활을 할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 바쁜 것이다. 사람은 더 잘 기도할수록 더 잘 살 수 있다. 믿음이 기도를 멈추면 살아 있는 것도 멈춘다. 늘 무릎 꿇고 있다면 넘어지기 어렵다. 말씀과 순종 안에서 기도하는 마음에는 도덕적 실패가 뿌리내리기 어렵다. 지도자가 넘어질 때 옆에 아홉은 의미 있는 기도 생활이 없었다.

7. 외로움을 핑계로 삼는다.
 사역은 힘들고 외로움은 잘못된 선택을 정당화하게 만든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죄를 잠재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특권을 받았다. 좌절과 부정적인 마음이 잘못된 길로 이끌지 못하게 해야 한다.

3. 기록함이 타협된다.
 원수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서 멀어지게 하려 한다. 침대에서 계속 떨어지는 아이에게 어머니가 "침대 안쪽으로 충분히 들어가 있지 않아서"라고 말한 이야기처럼, 우리가 죄에 빠지는 이유는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안전 울타리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참된 기독교는 마음에서 다

드러나기 전에 회개하라
 마지막으로, 지금 위태로운 상태에 있거나 이미 넘어졌다면 지금 회개하라. 회개는 아프지만, 드러난 후의 결과보다 훨씬 낫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붙들실 것이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죄에서 돌아서며 변명 없이 책임을 인정한다. 조건 없이 용서를 구한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은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변명이 멈출 때 치유가 시작된다. 과거의 실수에는 결과가 따르지만,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사는 것이 그분의 뜻 밖에서 무너진 채 사는 것보다 낫다. 당신은 어느 길을 선택하겠는가?
 최승연 기자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NRB 행사서 '신 없는 죄파' 비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 wiki

신적 돌봄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군인을 훈련하지, 군인을 '트랜스'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 중인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정책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트랜스젠더의 군 입대를 금지하고,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장병을 전역 조치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연설에서 다양성·형평·포용(DED) 정책과 기후변화 대응 기조도 비판하며 "우리는 하나의 군대, 하나의 전투부대"라고 강조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기독교 행사에서 이른바 '신 없는 죄파'를 비판하며 서구 기독교 전통을 강조했다. 2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전미종교방송연합회(NRB) 2026 국제 기독교 미디어 컨벤션'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 아래 군은 장병 훈련과 정

또 군이 '각성' 이념이 아닌 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공개 석상에서 신앙적 메시지를 담은 발언을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 국방부 기도회에 보수 개신교 복음주의 목회자로 잘 알려진 더그 윌슨 목사를 초청하기도 했다.
 흥은혜 기자

글로벌감리회, 회원 교회 수 7천 개 넘어서



지난 2024년 9월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열린 GMC 총회. ©YouTube

보수적 신학 노선을 내세우며 미국 연합감리교회(UMC)의 대안으로 설립된 교단이 창립 이후 빠르게 성장해 현재 전세계 7,000개 이상의 교회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2022년 성소수자 문제를 둘러싼 UMC 내부 분열 속에서 출범한 글로벌감리교회(GMC)는 최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전 세계 7,000개 교회를 공식적으로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이는 6,000개 교회를 돌파한 지 수개월 만이다. 교단은 성명에서 “성장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회개와 갱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변화된 삶에서 발견된다”며 “웨슬리안 전통에 따라 마음과 삶의 거룩함으로 부름받았으며, 주께 돌아와 그 사랑을 모든 공동체에 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GMC의 마크 J. 웹 감독은 이메일 성명에서 이번 성장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령의 인도에 담대히 순종한 신자들의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증언하는 살아 있는 증거”라며 “우리는 제자를 삼고 성경적 거룩함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려는 사명을 계속 감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한때 두 번째로 큰 개신교 교단이었던 UMC는 동성 결혼 축복과 비독신 동

성애자 성직자 안수 금지 규정을 담은 교단 법 개정 여부를 둘러싸고 수십 년간 갈등을 겪어 왔다. 총회에서 규정 변경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지만, 교단 내 진보 진영 일부는 이를 따르지 않거나 시행하지 않았다.

2020년 1월에는 서로 다른 신학적 배경을 지닌 UMC 지도자 16명이 교단 탈퇴를 원하는 교회들을 위한 분리 절차를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는 보수적 신학 교단 설립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이 안건은 2020년 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총회가 여러 차례 연기됐다. 이에 GMC 조직자들은 2022년 3월, 총회 승인 없이 그해 5월 새로운 교단을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성소수자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면서 수천 개 교회가 UMC를 탈퇴했으며, 대부분 GMC에 합류하고 일부는 초교파 교회로 전환했다.

2024년 1월 GMC 측은 교회 수가 4,200개를 넘어섰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후 같은 해 10월 6,000개 교회 돌파를 발표했다. UMC 총회는 그 사이 논란이 된 규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교단 법을 개정했지만, 지역 및 개별 교회가 해당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경 기자

브라질, 카니발 기간 복음주의 교회 거리 전도 확산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브라질 전역이 화려한 축제 분위기로 물든 카니발 기간, 복음주의 교회들이 거리와 해변, 광장 등 공공장소로 나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펼쳤다고 2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진행된 이번 ‘브라질 카니발 복음 전도’는 축제 한복판에서 십자가의 메시지를 선포하려는 시도로 주목을 받았다. 교회들은 삼바와 퍼커션 리듬을 활용한 거리 공연, 노방 전도, 개인 기도 사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가갔다. 일부 지역에서는 해변에서 세례식이 진행됐고, 여러 참가자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도 이어졌다.

■ 상파울루·리우·우바투바...거리와 해변에서 이어진 복음 선포

CDI는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여러 교회가 연합해 거리 전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공장소에서 찬양과 설교가 이어졌고, 자원봉사자들은 축제를 즐기던 이들에게 다가가 기도를 제안하고 신앙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교회 측은 카니발이라는 대규모 문화 행사 속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이번 사역의 핵심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한 교회는 ‘블레시드 바투카다(Blessed Batucada)’라는 이름의 타악 그룹을 구성해 삼바 리듬에 맞춰 공연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경쾌한 음악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공연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해안 도시 우바투바(Ubatuba)에서는 거리 전도와 함께 해변에서의 세례식이 진행됐다. 현지 교회 관계자에 따르면 여러 명이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결단을 했고, 일부는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축제의 열기 속

에서 진행된 이 장면은 많은 시민들의 시선을 모았다.

■ YWAM 참여와 창의적 선교 활동 확대

국제 선교단체 예수전도단(YWAM, Youth With A Mission)도 여러 도시에서 카니발 기간 선교 활동에 참여했다. 이들은 연극과 음악, 거리 설교 등 창의적 방식의 전도를 펼쳤다. 단순한 설교에 그치지 않고, 예술적 요소를 가미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복음 메시지를 접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YWAM은 또한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도 병행했다. 환경미화원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거나, 축제에 참여한 이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방식으로 섬김을 실천했다. 관계자들은 이러한 활동이 복음 전도의 한 부분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카니발이라는 대중적 문화 행사 속에서 진행된 ‘브라질 카니발 복음 전도’는 음악과 공연, 봉사를 결합한 형태로 확장됐다. 참가자들은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과 일대일 대화를 나누며 신앙에 대해 설명했고, 기도를 요청하는 이들을 위해 즉석에서 중보기도를 진행했다.

■ 벨루오리존치 청년들 거리 기도 “도시의 열쇠는 예수의 손에”

벨루오리존치(Belo Horizonte)에서는 수백 명의 청년 기독교인들이 거리로 나와 복음을 전하고 도시를 위한 기도를 드렸다. 이 사역은 제8장로교회가 주최한 청년 대회 일환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도심을 행진하며 찬양과 설교, 중보기도 시간을 가졌다. 한 공개 기도 시간에는 다수가 공공장소에서 무릎 꿇고 도시의 영적 각성을 위해 기도했다. 이들은 “이 도시의 열쇠는 예수의 손에 있다”고 선언하며 복음의 메시지를 강조했다. 최승연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미자민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1부 07:30AM -1부 09:00AM -평일(월-금) 05:00AM
-2부 09:15AM -2부 11:00AM -토요일 06:00AM
-3부 11:00AM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8th - 12th) 11:00 AM
이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아부 (24개월 이하) 11: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 예배 (KM) 오전 10:30 중,고등부 (Youth) 오전 10:30 **최현규 담임목사**
주일 예배 (EM) 오전 10:30 대학청년부 (College) 오전 10:30
유년부 (K-2) 오전 10:30 중보기도 (Intercessory prayer) 오전 9:40
초등부(3-5) 오전 10:30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joonim0623@gmail.com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강문수 담임목사

로렘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타주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후 12:30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후 12: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아요 내 길에 빛이입니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아기레슬) 오전11:00 **유경재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아부(베베(민물레슬))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일(금) 오후7:30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이정현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주일 2부 9:30AM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오영찬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야생영예배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곽덕근 담임목사**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이건창 담임목사**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화요성경공부 오후 7:30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ool.org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이충환 담임목사**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주일 3부 영아예배 오후 1:00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818)363-5887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박성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00

베이크스필드 ANC은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1:00 **송금관 담임목사**
주일 성경공부 풍요로운 삶 오전 9:30
화요 3.3.3 기도회 매일 둘째주 오전 10:30 목요 TEE 영육 Zoom 오후 7:30
목요 거리전도 오전 10:00 한인타운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평강교회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T. (213)393-9136 http://pyongkang.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강일진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 (한국어, 스페인어)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임인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송상용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이정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출기도회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 E.lvkchurch@gmail.com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장년예배 1부: 오전 9: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조용철 담임목사**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회 수요일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금요일 오후 7:00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임명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예배 7:00 PM
새벽기도회 화-토 5:50 AM

라스베가스 우리종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woorijoeunchurch.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 세신자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 **김광석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오전 10:45 제자훈련 주일 오후 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금요예배 저녁 7시
Youth 오전 10:45, 오후 1시 새벽예배 오전 6시(화-금)

라운드락교회

2011 Cade Lk, Round Rock, TX 78664
T.(512)228-1934 https://www.rkpc.net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크리스천 비지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nwood Ave. Los Angeles, CA 90028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축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꼬리뼈 통증 출혈로 앉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초강력 정력제 \$70**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고기, 김치만두, 찹쌀 모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FOP SERVICE, INC. License# 1139798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40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2027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 여성본부 출범

(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총재 이태희 목사, 이하 운동본부)가 '2027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를 위한 전국 확산 전략의 일환으로 여성 지도자 조직을 출범한다.

운동본부는 오는 23일 오전 11시 경기 여주시 소재 예명교회에서 '2027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 여성본부 발대식 및 대표본부장·임원 취임 감사예배'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민족복음화 운동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여성 지도자 네트워크를 제도화하고, 지역 교회 중심의 전도와 기도운동을 본격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여성본부 대표본부장은 한경희 목사가 맡으며, 총괄본부장에는 손보라 목사가 선임됐다. 총감사단장은 서사라 목사가 담당한다. 여성 대회장단에는 이경은·강복열·성창경·김경은·피은혜·윤동에 목사가 참여한다.

여성본부는 전국 여성 사역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지역교회 기반 전도 확산 모델을 구축하고, 권역별 기도 네트워크와 성령운동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운동본부는 이번 조직 출범이 2027년을 앞둔 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성 지도자 조직의 공식화를 통해 지역교회 중심 전도운동을 활성화하고, 회개와 기도, 성령운동을 현장 중심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 가정과 다음세대를 연결하는 복음화 플랫폼 구축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한경희 대표본부장은 "2027년은 영적 각성의 분수령"이라며 "여성 지도자들이 먼저 기도와 회개로 나설 때 민족복음화의 흐름이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직을 넘어 각 지역교회가 중심이 되는 살아있는 전도 네트워크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손보라 총괄본부장은 "여성본부는 전국 조직을 연결하는 실무 허브로서 현장 중심의 실행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본부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권역별 기도집회와 여성 전도지도자 양성 세미나를 추진하고, 회개·성령집회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2027년 대성회를 위한 조직 확장과 참여 기반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현진 작가 People of Faith 전시회

이현진 작가의 전시회 "People of Faith"가 3월 14일(토)~3월 28일(토)까지 LA 한인타운 사토 길에 위치한 리앤리 갤러리(3130 Wilshire Blvd #502)에서 개최된다.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120여 점이 전시된다. 선에 근거한 동양화적인 기법과 색채를 중시하는 서양화 기법을

통해 성경속의 세상과 인물들을 독특한 관점으로 자유롭게 표현했다.

이현진 작가는 선화예중, 예고를 거쳐 UCLA에서 Fine Art를 졸업하고 LA에서 3회 개인전을 열었다. 남가주 미술가 협회 회원이며, 크리스천 컨템포러리 파인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부친 고 이명구 교수(서울대 졸, 건대 36년 재직)

모친 고 박용순(이대 서양화 2기 졸업) 모두 작가로 활동했다.

오프닝 리셉션은 14일(토) 오후 2시~5시에 진행된다. 주차는 무료이다. (문의: 213-305-1698)

갤러리 시간 월-금 11시-5시 토 12-4시, 주말(Closed)
조셉 리 기자

사순절을 훈련과 실천의 기간으로!

사순절 기간 하루 한끼 금식으로 가난한 이웃에게 소망을 나눕시다

World Share USA 홍보 대사



(고) 전용대 목사 차영 교수

World Share USA 홍보 대사로 섬겨주신 **전용대 목사님**이 지난 2월 9일에 소천하셨습니다. World Share USA는 목사님의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이어가도록 하였습니다...

World Share USA는 사순절 신앙 훈련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사순절 기간 중에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며 바른 신앙을 키웠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처럼 기도, 묵상, 나눔 그리고 선교가 실천되는 2026년 사순절이 되기를 기도하며 사순절 신앙 캠페인을 펼칩니다! 목사님! 성도님! 교회와 성도들이 사순절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World Share USA 2026 사순절 캠페인 준비위원장 민경엽 목사님 준비위원 임동

2026 사순절 개요 시작일: 2월 18일~종료일: 4월 4일
World Share USA는 소망학교(아이티, 도미니카), 고아원(수리남), 전쟁 희생 유가족(우크라이나) 돕기를 합니다. 전쟁 희생 유가족, 전쟁 난민(우크라이나) 돕기를 합니다.

어떻게 참가할까요?

- 개인** 월드쉐어USA로 사순절 나눔의 금식에 참가 통보 (가능한 미리 공지 및 통보 해주시면 사순절 기간을 더 잘 보낼 수 있습니다.)하시고, 사순절 금식 선교비를 월드쉐어USA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교회** 나눔의 금식 참가의사를 월드쉐어USA에 알려 주시고, 성도들에게 참가를 권면하시고 성도들의 금식비 선교비를 월드쉐어 USA로 전달하십시오.
- 월드쉐어 USA** 전쟁과 극한의 추위에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국민, 아이티, 수리남, 도미니카 공화국 등 극지역 아동들과 소망학교에 영적 양육과 성경 필사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2026 나눔의 사순절 섬기시는 분들



후원문의 (323)578-7933 강태광 목사
3123 W. 8th St. #206, Los Angeles, CA 90005

강준민 칼럼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지혜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마음은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의 가치는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를 담은 그릇이 됩니다. 반면에 보석을 담으면 보석을 담은 그릇이 됩니다. 똑같은 그릇이라도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허성준 작가는 마음의 그릇을 '기억의 그릇'으로 표현합니다.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오물을 담은 그릇은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못합니다. 황금을 담은 그릇의 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모두 기억이라는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임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눅 6:45). 마음의 그릇에 선이 쌓이면 선이 흘러나오고,

악이 쌓이면 악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담을지 잘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문장들로 마음의 그릇을 채우면 우리의 언어가 아름다워집니다. 그 언어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반대로 마음의 그릇에 원망과 불평과 시기를 채우면, 우리의 언어는 부정적으로 변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암송해야 합니다. 또한 좋은 책을 읽고, 그 안에 담긴 지혜의 언어, 긍정의 언어, 아름다운 언어로 마음의 그릇을 채워야 합니다.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그릇 자체를 넓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그릇이 작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담으려 해도 많이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마음의 그릇은 태어날 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삶의 여정 속에서 얼마든지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의 그릇을 키울 수 있을까요?

첫째, 열린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의 그릇이 커집니다. 마음이 닫히면 좋은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닫히면 마음은 점점 작아집니다. 마음을 연다는 것은 다양한 사람을 품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제한적인 존재이기에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무분별하게 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 품

어야 할 사람이 있고, 피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배우는 과정 속에서 통찰력과 분별력이 자라납니다.

둘째,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때 마음의 그릇이 커집니다. 마음의 그릇을 키운다는 것은 지식적·감정적·영적 성숙을 의미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다양한 사람과 상황과 감정을 담아내면서도 그 속에서 균형과 침착함,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그릇이 커질수록 우리는 문제와 갈등을 더 잘 소화하고, 극복하며,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 때 마음의 그릇이 커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사랑이 필요한 한 사람을 선택하여, 보상이나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섬겨 보십시오. 그 과정을 통해 마음의 그릇이 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의 그릇은 이기적일수록 작아집니다. 박노해 시인은 '나쁜 사람'을 "나쁜인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느라 타인을 품지 못하는 사람이 진정한 나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넷째,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할 때 마음의 그릇이 커집니다.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깊은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인간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명하시는 이유는,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가 마음과 복수심이라는 감옥에 갇히기 때

문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말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미움에 사로잡힌 채 스스로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다."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은 닫히고, 그 결과 우리는 자유와 기쁨을 잃게 됩니다. 데즈먼드 투투는 "용서 없이는 미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행위이기보다,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한층 더 넓어집니다. 물론 용서한다고 해서 다시 가까이 지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셨지만, 부활 후에는 그들을 찾아가시기보다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다섯째, 배려하는 성품을 개발할 때 마음의 그릇이 커집니다. 배려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성품이며, 비이기적인 태도입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아파해 주는 마음입니다.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타인을 이해하려 할 때 마음의 그릇은 넓어집니다. 특히 판단과 비판을 잠시 보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타인의 조건과 비판을 받아들일 때 마음의 그릇은 더욱 자랍니다.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지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빌 2:5). 오늘 내 마음의 그릇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마음의 그릇을 넓혀 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유철 칼럼

인내하면 구원도 사명감당도 된다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2주 전의 수퍼볼에서 뉴잉글랜드 패트리엇츠를 29대 13, 큰 점수 차로 이긴 시애틀 시호크스(바다 매)팀의 쿼터백 샘 다놀드(Sam Darnold)이야기입니다.

USC 대학 때 큰 활약을 펼치며 20살 어린나이에 뉴욕 제츠 팀으로 뽑혀갔지만, 드래프트 실패 사례라고 할 정도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후 백업 쿼터백으로 이리저리 여러 팀을 전전하면서도 결코 자신에 대한 믿음을 포기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미네소타에서 14승3패의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나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실망스러운 경기로 그 팀에서 마저 내몰렸는데, 평소 그의 잠재력과 강한 멘탈을 눈여겨보았던 시애틀 코치가 그를 픽업하였고 결국 수퍼볼 우승이라는 인간승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번이 LX, 60회째 수퍼볼인데, 쿼터백으로 5팀을 전전하다가 우승한 선수는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밑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에서도 투철한 기독교인 부모님이 긍정의 믿음으로 자신을 지지하며 자존감을 높여 주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이야기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인내"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계2:2)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계2:19)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라"(계3:10)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계14:12)

어떻게 인내, 오래 참음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구세주 예수님이 오래 참음하시기에, 주님을 바라보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방향이 주님보다 자신이나 세상을 향해 있으면 참지 못하고 조금하여 인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10년 칠레 산호세 광산이 붕괴하며 지하 700m 아래에 69일간 갇혔던 33명의 광부 이야기는 단순한 생존 드라마를 넘어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큰 울림을 준 영적 승리의 기록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유명한 고백입니다. 구조를 기다리던 중 19세의 최연소 광부 지미 산체스(Jimmy Sanchez)가 지상으로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34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광부들 중에 '목사'라고 불리던 '호세 엔리께스'는 매일 정해진

시간(정오와 오후 6시)에 예배와 기도 모임을 인도하며 영적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캄캄한 지하에서 호세의 인도 아래 무려 22명의 광부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69일간 철쭉 같은 어둠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번 27일, 금요일에 배 때는 '교회설립 52주년 및 임직 감사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임직을 받는 한 분 한 분이 오래 참음의 증인이 되어서, 온 교회가 인내를 배우고 실천하여 구원도 사명감당도 이루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샬롬!



2026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THEOLOGICAL SEMINARY 신입생 모집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GATEWAY SEMINARY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144명의 여왕 (4인1조)
2026 최고의 전미주 **조선우먼'S** 골프 챔피언십을
개최합니다 (아마추어 Golfer only)

비즈니스의
튼튼한 파트너,

cbb Bank 와

함께하는

제 1회 전 미주 **조선우먼'S** 골프대회



Strawberry Farms Golf Club

11 Strawberry Farms Rd., Irvine, CA 92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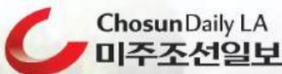
2026년 **3월 12일** (목요일)



- ▶ 접수 오전 9시30분부터
- ▶ 티오프 12:30 PM - Shotgun Start
- ▶ 참가비 \$185 (1인), \$740 (4인/팀당)
- ▶ 참가인원 총 144명(4인 1조)
- ▶ 부문 단체 대항전, 개인전 (일반부, 시니어부)
- ▶ 경기방식 개인 (Stroke Play)
- ▶ 조편성 단체 (상위 성적 3인의 스트로크 합산)
- ▶ 시상
 - 개인 및 단체 우승자에게 그린 재킷 수여 (챔피언 그린 재킷 시상식 포함)
 - 개인 메달리스트 (일반/시니어) 트로피와 부상
 - 단체 우승 및 준우승 트로피와 부상
 - 홀인원상 (2개 홀) 현금 2만불 (2개 홀 각 1만불씩)
 - 니어리스트 및 롱기스트 상패 및 부상
- ▶ 운영 프로헤드 및 전문 운영요원 배치 (USGA 및 로컬 룰 적용)

접수문의 (213)365-6800 | (213)315-5177 (박상신 본부장) - 접수마감임박 -
4221 Wilshire Blvd., #224, L.A., CA 90010 • E-mail : chosunla25@gmail.com

주최



*본 광고에 사용된 인물 이미지는 Chat GPT AI로 제작된 가상 모델입니다. The person shown is a virtual model created using Chat GPT AI technology.

*Getty Image Bank 광고용 이미지



- 상품 -

- 개인 및 단체 우승 및 준우승 수상자들에게 \$3,000 지급
- 개인 및 단체 우승자에게 그린 재킷 수여
- 한국왕복 항공권, 골프채 및 골프용품, 호텔숙박권, 마켓쿠폰, 식당쿠폰, 화장품, 생활용품 등
- 미주조선일보 전자신문 무료구독권 (참가자 전원)

후원업체



※ 라운드 종료 후, 클럽하우스 연회장에서 시상식 및 고급만찬, 최대의 풍성한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목동 칼럼

카타르 도하 공항 대합실에서, 콜카타를 향하며



신 병 옥 목사
미라클LA교회
비전 50 선교회

Hamad International Airport 대합실에서 콜카타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다. 카타르 도하를 경유해 인도로 향하는 여정의 중간 지점, 수많은 항공편이 오가는 이 거대한 공항 한켠에서 글을 쓰고 있다. 게이트 앞 의자에는 다양한 피부색의 인도 승객들이 앉아 있다. 사리 차림의 여인, 활기찬 보이는 청년들, 아이의 손을 꼭 잡은 아버지,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를 하는 학생. 서로 다른 언어, 서로 다른 억양, 그러나 모두 같은 목적지를 향하고 있다. 그 얼굴들을 바라보는 순간, 34년 전에 가르치던 교회 청년들과 보았던 영화 City of Joy가 문득 떠올랐다.

젊은 시절, 나는 그 영화를 통해 콜카타를 처음 만났다. 스크린 속 도시는 가난했고, 거칠었고, 때로는 비참해 보였다. 그러나 그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따뜻함이 있었다. 절망 속에서도 서로를 붙드는 손길, 무너진 환경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인간의 존엄. 당시 전도사였던 필자는 일반 대학교에서 공부하던 87년부터 하나님의 선교의 풀림으로 인해 그 영화조차도 '확장적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하며 보았던 기억이 난다.

더 많은 나라, 더 많은 사람, 더 큰 효과, 더 큰 영향력 등의 요소들을 생각하며 지도를 펼쳐 놓고 점을 찍듯 선교의 세계를 꿈꾸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영화 속 콜카타의 골목과 등장인물들의 삶의 모습은 조용히 저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었다. 선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일이 아니라, 먼저 내가 낮아지는 사건임을 그 영화는 말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세월이 흐르고 필자는 재생산하는 제자 훈련과 선교적교회를 향해 달려왔고,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Vision 50 선교운동을 지난 22년동안 섬겨왔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선교운동의 출발이었는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시진핑(?)의 기도교탄압과 일대일로로 도움으로 비전 50 선교회는 한때 23개국까지 국가별 본부 팀을 세웠다. 23개국, 3,000교회, 4,000명의 목회자가 동참하고 있으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음이 분명하였다. 외형적으로는 분명 확장이었다. 보고서의 숫자는 늘어났고, 세계 지도 위의 표시는 많아졌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자신들을 새롭게 정렬하게 되었다. 이러한 확장 뒤에 힘들게 숨을 헐떡이며 지친 모습으로 따라오는 본질의 진정성이 애초에 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비전 50 선교는 진정성을 확인하고 있는가? 우리는나라의 수를 세고 있는가, 아니면 제자의 깊이를 보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의 대답은 가뻔지 않았다.

결국 우리는 진정성이 약해진 국가의 본부들을 정리하고 16개 나라로 줄이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진정성을 다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우선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기로 확정하였다. 숫자적으로 보면 후

되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그것은 영적 진정성의 정렬의 시간이었다. 동역했던 나라들의 목회자와 멀어지는 과정은 불편했고, 때로는 아팠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중심을 다시 붙들게 되었다. 선교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스며드는 것이며, 진정으로 스며들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었다.

우리가 아는 중용 23장에는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면 결국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고 말한다. 안에서의 진실함이 깊이 스며들면 결국 진정성이 밖으로 드러나 세상을 변화하며 움직인다는 통찰이다. 이를 성경은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겨자씨 비유, 한 알의 밀알의 비유 등 예수님은 우리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진정성의 중요함을 각인시켜 주셨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대단하지 않게 시작된다. 겨자씨는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존재지만 생명을 품고 있고, 땅 속으로 내려가며 더 단단히 자란다. 23에서 16으로의 결정은 바로 그 내려감이었다. 숫자는 줄었지만 밀도는 깊어졌다. 네트워크는 축소되었지만 동역은 단단해졌다. (실제로 국가별 본부 숫자는 줄었지만 진정성을 가진 목회자의 참여수는 여전히 4,000명에 달하고 있다.) 결국 확장이 멈춘 것이 아니라, 다시 울며 씨를 뿌리며 한 알의 밀알을 심는 일이 제대로 시작된 것이다.

특별히 인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Vi-

sion 50의 본질이 형식이 아닌 실체가 되었다. 강단 위의 구호가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제자도의 운동이 되었다. 힌두교 나라 인도는 복음과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슬림 나라와 같이 인도의 교회도 어려움과 핍박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러한 위협적인 분위기 중에도 인도 비전 50 본부에는 1,200명의 현지 목회자들이 동역하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고난 중에 빛나는 열매들이며, 결코 잊을 수 없는 이들이며, 기도와 헌신의 열매들이다. 필자의 이번 콜카타 방문 역시 그 연장선 위에 있다. 280명의 목회자들과 비전을 나누는 자리다. 나라 하나를 더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 사람을 다시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 23에서 16으로, 그리고 이제 16에서 1로. 결국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확장된 지도보다 복음 앞에 바로 선, 결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글을 마무리하며 다시 고개를 드니, 도하 공항 대합실에 앉아 있는 이들의 얼굴이 보인다. 조금 전까지는 단지 '승객'이었지만,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르게 보인다. 콜카타는 더 이상 영화 속 장면이 아니다. 곧 내가 걸어 들어가야 할 실제의 땅이다. 그곳은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신 자리이며, 나를 다시 낮추는 자리다. 선교는 행세하며, 행차하는 일이 아니라, 낮은대로 흘러 스며드는 일임을, 그리고 깊이 내려간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심을 콜카타행 대합실에서 묵상해 본다.

하여 나도 몰래 낮은 목소리로 기도하게 된다. 주님, 저의 지도를 접게 하시고, 죽은 듯 떨어져 있는 밀알 한 알을 주목하게 하소서.

김한요 칼럼

화장실의 두 마음



김 한 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여러분은 한번 시작하면 꾸준하게 하십니까? 아니면 하다 마는 경우가 많습니까? 새해를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람이 꾸준하다는 것은 해변에서 다이아 반지를 찾는 것보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자 사자성어에서도 '여축이심(如廁二

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Danger Past, God Forgotten 표현 혹은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은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용변이 급할 때는 우리의 시선이 화장실 표시를 찾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것들이 번뜩여도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속이 편해지면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저에게 암은 화장실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기까지 온통 저의 생각은 암으로부터 극복이었습니다. 수술 전까지는 수술해서 암만 제거 된다면, 수술 후 걷기가 힘들어 워커를 잡고 겨우 걷기를 시작할 때는 다시 도움 없이 걸을 수만 있다면, 겨우 걷기를 시작할 때는 걸음을 땀 때마다 울림이 되어 수술 부위에 통증으로 다가올

때는 다시 뭘 수만 있다면... 끝나지 않는 마음의 팔랑거림이었습니다. 수술 후 집으로 퇴원하여 가료 중, 아내도 하루 세끼를 챙기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살아만 있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매일 밥을 해 주는 아내에게 참 고마움이 넘칩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지나고, 이제는 용신이 좀 가능 해졌을 때부터, 저는 갑자기 삼식이 세끼가 되어 가고 아내의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아무것도 못하고 하루 밥만 먹고 있는 제가 한심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폐활량 넓히기 위한 운동을 계속 하는데, 처음에 들숨의 용량이 500ml이었다가 지금은 2,000ml까지 늘었습니다. 앞으로 2,500에서 3,000ml까지 넓히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겠

지만, 새롭게 주님을 향한 목표 설정을 상향 조정하면서 간다면, 화장실의 두 마음은 항상 주를 향한 마음으로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걷기 시작했을 때 뛰는 것을 목표로, 뛰기 시작했을 때는 나는 것을 목표로 재설정하면서 늘 주님을 향한 나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면, 화장실의 두 마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꾸준해야 함은 방향의 꾸준함이지, 설정한 목표를 재조정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쩌면 끊임 없는 목표 재설정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꼭 해야 할 일입니다. 병이 낫기를 구하는 기도도 병이 나오면 없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병이 나아가면서 다시 걷고 뛰는 목표로 재설정해서 기도해야 하듯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걸음도 꼭 그렇게 달려가길 바랍니다.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거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임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기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서울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HYUNDAI
GETAWAY
SALES EVENT

PH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새봄맞이
세일즈 이벤트



NEW 2026 HYUNDAI
Palisade
Calligraphy



NEW 2026 HYUNDAI
Elantra
Hybrid



NEW 2026 HYUNDAI
Ioniq 9
Limited



NEW 2026 HYUNDAI
Santa Fe
Calligraphy



NEW 2026 HYUNDAI
Ioniq 5
Limited RWD

0%

APR Financing
(차종에 따라서)

60개월까지 할부 가능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90 days first payment (첫 90일간 납부 유예)

함께 일할 세일즈맨 구합니다!

한인 메카닉 서비스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Frank Kim 323.823.0682



Sean Kim 213.605.2886 Jae Lee 714.319.4611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HYUNDAI
1-888-644-7114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문맥으로 읽는 비유

같은 비유도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야 하는 이유



이충재 목사가 저술한 『문맥 안에 새긴 비유, 비유 안에 새긴 예수』는 복음서, 특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의 비유를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에서 벗어나 본문과 문맥 중심으로 재해석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이 책은 한국교회 강단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비유의 독자 중심적, 은혜 중심적 해석의 한계를 비판하고, 예수와 복음서 저자의 의도를 본문 내에서 찾으려는 학문적 태도를 견지한다.

기존 해석의 한계와 본문

한국교회와 신학계에서 예수의 비유는 종종 알레고리적으로 해석돼 왔다. 즉 각 비유 요소마다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거나, 본문과 무관하게 현대적 적용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러한 해석은 때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흐리거나, 예수의 원래 의도를 왜곡할 위험이 있다. 이충재 목사는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비유 해석의 핵심은 본문을 말씀하신 주님이나 성경 기자의 의도를 바르게 파악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비유가 등장하는 문맥, 즉 비유의 상황과 청중, 그리고 서사적 전개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이는 최근 성서신학에서 강조되는 내러티브 비평, 문맥적 읽기, 역사적-문법적 해석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이 책의 백미는 동일한 비유라도 각 복음서의 문맥에 따라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는 데 있다.

대표적으로 ‘잃은 양의 비유’를 살펴보면, 누가복음의 잃은 양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비난하는 상황에서 제시된다. 여기서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점이다. 즉 비유의 대상은 회개해야 할 죄인이며, 청중은 자기 의에 빠진 종교 지도자들이다. 이에 반해 마태복음의 잃은 양 비유는 전혀 다른 문맥에서 등장한다.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묻는 자리에서, 예수는 소자(받는 자, 공동체 내 약자)를 실족시키지 말라는 교훈을 주신다. 여기서 비유의 핵심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소자를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데 있다. 즉 비유의 대상은 공동체 내 약자이고, 청중은 제자들이다.

이는 비유의 적용점이 누가복음과 근본적으로 다름을 보여준다. 이 같은 문맥적 해석은 비유의 본래 의도와 메시지를 정확하게 드러내며, 복음서 저자 각각의 신학적 강조점까지도 읽어낼 수 있게 한다. 이충재 목사의 해석학적 전환은 복음서 해석 전반에 걸쳐 신학적 함의를 지닌다.

첫째, 성경 해석의 객관성 제고이다. 본문과 문맥에 충실한 해석은 독자 중심적, 주관적 해석의 위험을 줄이고, 성경 본문이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성경 해석의 신뢰성을 높이고, 교회 강단에서 오용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

둘째, 공동체 윤리 회복이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의 잃은 양 비유를 문맥적으로 읽을 때, 교회 공동체 내 약자를 배려하고 실족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윤리적 요청이 부각된다. 이는 단순히 “잃은 영혼을 찾아야 한다”는 전도적 해석을 넘어, 공동체적 책임과 배려의 신학을 강조한다. 셋째, 예수의 메시지와 복음서 신학의 다양성 존중이다. 동일한 비유라도 각 복음서 저자가 처한 상황과 신학적 목적에 따라 다르게 배열되고 해석됨을 인정하는 것은, 복음서 신학의 다양성과 풍성함을 존중하는 태도이다. 이는 복음서 간 조화(harmony) 시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가능하게 한다. ‘잔치의 비유’ 역시 마태와 누가복음에서 각각 다른 맥락에 위치하며, 서로 다른 메시지를 전달한다.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 비유는 종말론적 심판과 유대 지도자들의 거부를 강조하는 반면, 누가복음의 잔치 비유는 포용과 회개의 메시지에 초점을 둔다. 이처럼 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를 땅에 파묻는 모습. ©jesuschristformuslims.com

맥적 읽기는 비유의 신학적 의미를 풍성하게 확장시킨다. 마태복음의 등불 비유 역시 마가, 누가와 비교할 때 강조점이 다르다. 마태는 등불을 가진 자의 책임과 자세를 강조하는 반면, 마가와 누가는 진리의 등불에 대한 대적 세력과 그에 대한 심판을 강조한다. 이 역시 문맥의 차이가 비유의 해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이충재 목사의 『문맥 안에 새긴 비유, 비유 안에 새긴 예수』는 한국 교회와 신학계에 다음과 같은 학문적·실천적 기여를 전한다.

본문-문맥 중심의 해석은 최근 성서학 주류 방법론과 결을 같이하며, 복음서 신학의 다양성과 내러티브적 특성을 존중한다. 이는 기존 알레고리적, 적용 중심적 해석

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유효하다. 실천적 관점에서 본다면, 교회 강단에서 비유가 본문과 무관하게 오용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하며, 성도들에게 성경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제공한다.

『문맥 안에 새긴 비유, 비유 안에 새긴 예수』는 복음서 비유 해석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 본문과 문맥에 충실한 해석은 예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며, 복음서 신학의 풍성함을 드러낸다.

이 책은 예수의 비유를 다시 읽고, 오늘의 교회와 신앙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귀중한 안내서라 할 수 있다.

서상진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문맥 안에 새긴 비유, 비유 안에 새긴 예수

이충재 | 감은사 | 416쪽 | 29,800원

복음서 예수님의 비유를 해설한다. 특히, 비유의 문맥적 읽기라는 방법을 통해 비유 안에 새긴 예수님의 모습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 예수님의 비유는 문맥 안에 새겨져 있고 비유 안에는 예수님이 새겨져 있다

바위 위에 새겨진 글자를 떼낼 수 없듯이 비유도 복음서 문맥에서 떼어낼 수 없고 떼어내어도 안 된다. 또한, 비유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서의 문맥 안에 있기 때문에 비유 안에서 예수님이 아닌 것을 발견할 수는 없다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출가산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SHALOM ACUPUNCTURE
shalom한의원
 Diamond Bar 샬롬한의원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환자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1st Time Discount
50%
 with Google Reviews

- ✓ 각종 보험 완비
Comprehensive Insurance Coverage
- ✓ 다양한 임상경험
A variety of Clinical Experience
- ✓ 체질 맞춤 보약, 알약
Constitution-Customized Herbal Medicine
- ✓ 체열 사진촬영
Thermal Imaging Photography

(909) 860-4260
 cell: (213) 518-4635 / shalomacu.drkim@gmail.com

22640 Golden Springs Dr., STE B, Diamond Bar, CA 91765

[서성록, 한 점의 그림] 이광혁의 '말씀그림', 문자로 만든 이미지

성경 속 글자 하나하나 새기고 모아...한 편의 성화 그리다

점이 그림 된다면 글자도 가능 이후 새긴 글자로 예수님 그려 전쟁통 가족과 생이별 후 작품 혼자 자취하며 수십년 필사해

1966년 기독교미술인협회 창립전이 개막됐을 때 사람들의 눈길을 끈 작품이 있었다. 이광혁(1913-1999)의 '신약'이란 작품이었다.

당시 신문은 그림의 특이성에 주목했다. '신약'이 '신약전서 83만 8,380 글자(영문)로 그려진 그림(조선일보, 1966. 12. 13)'이며, 4년 걸쳐 작품을 완성했다는 사실을 부각시켰다. 종교화 전에 충분히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화제성 있는 작품'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그 후 이광혁의 발표 활동은 뜸해진다. 그런데 이것은 미술가로서 이번이 생가지 않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작가로서 작품 발표가 없다는 것은 작품을 하지 않거나 작업포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그의 작업 특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한 점을 완성하는데 수년이 걸렸기 때문에, 그로서는 매년 열리는 정기전 참가가 벅찼을 것이다. 그의

문자 그림은 계속됐지만, 그의 활동은 알려지지 않았다. 목사이자 화가였던 이연호가 간간히 그의 동정을 알렸을 뿐이다.

그에 대한 소식은 언론 매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장 이른 소식은 1955년 '문자로 된 성화(조선 1955. 9. 30)'라는 기사다. 신문에는 그가 '요한복음'을 작품 구성 19년 만에 마침내 완성했다는 소식이 실렸다.

기사에서는 성경 문자로만 구성된 독특한 성화를 금년 3월 완성하게 됐다고 보도한다. 그림을 함께 실었는데, 마치 모자이크를 완성할 때처럼 하나하나의 문자로 그리스도의 성상을 만든 것이었다.

몇 년 뒤에는 그의 본격적인 작품 '신약'이 빛을 보게 됐다. 한국 기독교미술인협회 창립전에 출품한 '신약'은 장안의 화제가 됐을 것이다. 글자로 그림을 만든다는 것과 명암과 형태를 넣은 것이 신기하게 여겨졌던 것 같다.

대한뉴스 제 149호(1958. 1. 28)에 그에 관한 소식이 '한글과 영문으로 된 초상화', '예수의 얼굴에 새겨져 있는 성경'이란 설명과 함께 전국적으로 보도됐다. 그때는 TV가 등장하기도 전이었으므로, '대한뉴스'라는 매체를 통해 알려졌다다는 것은 그의 작품이 이목

을 끄는 일로 인식된 셈이다. 지금도 이 영상을 KTV e-영상 역사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광혁의 신앙 여정은 유년 시절부터 시작됐다. 1913년 평양 근교 농가에서 자란 이광혁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친척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일제 시기 비행기가 연기를 뿌리면서 원을 그리며 지나가는 것을 보고 "연기같이 사라지는 인생이 되지 말고 무언가 후대에 길이 남기는 인생이 되게 해 주세요(미주한국일보, 2008. 5. 1)"라고 기도했다고 한다.

평양 선교리 동평양 교회에서 학생과 교사로 만난 주선에 교수(1924-2022)는 이광혁 선생이 주일학교 시절 존 버니언(John Bunyan)의 『천로역정』을 그림으로 제작해 이야기를 들려주던 것을 오래도록 기억했다.

한번은 이광혁 선생이 부활절을 맞아 예수님 승천 모습을 대형 그림으로 만들어 설명해 줬는데, 주선에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보고 "하늘로 가심을 본 대로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을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다고 한다(주선, "나의 어린 시절 교회학교 선생 이광혁 장로님", 『교육교회』,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연구원 275호, 1999, 42쪽).

교사 이광혁은 일제 때 구연자가 그림을 앞에 놓고 이야기를 전하는 '종이연극(가미시바이, 紙芝居)'을 주일학교 프로그램에 활용했던 것 같다.

그에게 어린이 교육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주선에 따르면, 이광혁은 기도를 하던 중 "온 천하에 다니며 내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않지 않았느냐"는 전도의 명령을 받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어린이 교육에 헌신하기로 다짐했다고 한다.

우연히 잡지를 보다 실린 도판이 점(點)으로 돼 있음을 발견하고 "점이 그림이 된다면, 글자도 그림이 될 수 있으리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한다. 예수님 이미지를 그리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의 글자를 새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일련의 '말씀그림'이다.



▲이광혁의 '신약'. 유튜브에 게재된 1958년 1월 28일 대한뉴스 149호에서.

를 이룬다.

그의 생애에 전환점이 된 것은 한국전쟁 발발이었다. 잠시 피난길에 오른 것이 38선으로 인해 아내 및 자녀와 생이별하는 아픔으로 이어졌다. 가슴 아픈 상황 속에서도 그는 가족의 생사를 주님께 맡기고 남한 사회에 정착했다.

셋방에서 혼자 자취를 하며 성경을 필사하는 수십년 세월, 나아가 글씨를 그림으로 발전시킨 것이 그의 독특한 예술을 탄생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그리하여 탄생한 것이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기독교신상>, <로고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십계명> 등이다.

1971년을 기준으로 월남한 이후 17점의 작품을 완성했다는 것으로 미루어, 작품 수는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글자로만 그린 성화 미국서 화제", 동아일보 1971. 1. 12).

그의 작품은 1950년대에 제작된 것이 많은데, 이 시기는 기독교 작품들이 흔치 않았으므로 미술사적으로 볼 때도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문자' 기법은 단순히 시각적 새로움을 넘어 신학적 의미를 내포하는데, 그것은 성경 말씀(로고스) 자체가 형상을 이루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핵심 교리(성육신)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로고스 작품을 여러 나라 방언으로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모든 민족과 문화를 초월해 전달돼야 하며 주님이야말로 '만왕의 왕'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천사들의 얼굴을 그릴 때도 인종을 구별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임을 나타내는 다양

한 모습들로 그렸다.

그의 작품은 국내외 각국 지도자들에게 전달되기도 했다. 그는 슈바이처 박사와 한국전쟁에 군대를 보낸 에티오피아 국왕에게 그림을, 빌리 그레함 목사에게도 실물 크기의 복제화를 증정했다. 1963년 미국 '그림성경사전'에 해설과 함께 그의 '신약' 그림이 실렸으며, 일본에서도 그의 작품이 몇 차례 소개된 적이 있다.

어린이 교육에 힘쓰던 작가는 1970년대 대한성서공회에 '착한 어린이센터'를 조직해 어린이 교육에 기여했고, 영락교회 주일학교를 성장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가 미국으로 이주한 것도 어린이 교육과 관련이 있다. 주선에 교수는 이광혁 작가를 추모하는 글에서 1972년 '어린이 전도여행'으로 미국을 방문했다가 결국 LA에 체류하게 됐다고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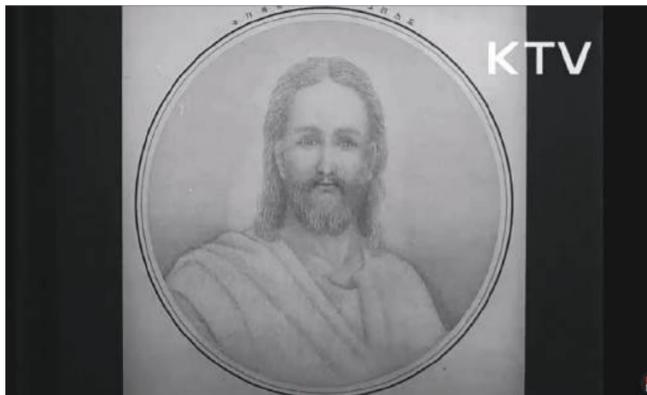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눈에 띈다. 1971년 신문에는 미국인 제럴드 클리브랜드가 문공부장관에게 화가를 수소문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는데 그의 도미가 클리브랜드의 방한과 관련이 있지 않나 추정해볼 수 있다(동아일보, 1971. 1. 12). 하지만 미국에서 이광혁의 활동 내역은 알려지지 않아, 추가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사후 그의 예술세계를 기리는 작품전은 2009년 순복음 시카고 교회와 2010년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각각 개최됐다. 미국 '임마누엘 말씀 성화 선교회'가 박상진 목사 주도로 작가가 사랑한 하나님 말씀과 그림을 미국과 한국에서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서성록 명예교수
안동대 미술학과



▲이광혁의 '신약'. 유튜브에 게재된 1958년 1월 28일 대한뉴스 149호에서.



▲이광혁의 '누가복음'. 유튜브에 게재된 1958년 1월 28일 대한뉴스 149호에서.

부목사 청빙

www.sunhanchurch.com

캘리포니아 LA 동부 Chino Hills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부목사 한 분의 담임목사 부임으로 인해 함께 동역하실 Full-time 부목사를 청빙합니다.

1. 지원 자격

- 1) ECO (복음언약장로교 A Covenant Order of Evangelical Presbyterians, www.eco-pres.org) 교단에 속해 있거나 교단 가입이 가능하신 분
- 2) 정규 신학대학원 (M.Div) 졸업자
- 3) 현 거주지가 미국이고, 미국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필요시 종교비자 지원 가능)
- 4) 장년부 사역 유경험자

2. 모집분야

- 1) 풀타임 부목사 (1명) - 교구와 청년부(15명 정도) 사역을 함께 맡음

3. 제출서류 (PDF file로 제출요함)

- 1) 이력서 1부 (사진 첨부) - 미국에서의 자신의 법적 신분 명시 (예:영주권자)
- 2) 자기소개서 1부 (신앙고백 및 간증문, 사역 및 일반 경력, 은사, 가족소개 및 사진)
- 3) 최근 1년 이내 설교 영상(2편): 유튜브 링크
- 4) 추천인 2명 이름과 연락처 (전화번호 및 이메일 / 추천인 1명은 현(최근) 사역교회 담임목사, 다른 추천인 1명은 이전 사역교회 담임목사이어야 함) -추천서는 1차 서류심사 후 선정되신 분에 한해서 추천인에게 본 교회에서 직접 연락함.
- 5) 신학대학원(M.Div) 졸업 및 성적증명서, 대학교와 대학원(해당되는 분) 졸업증명서, 목사 안수증명서 각 사본 1부

4. 지원 및 문의

- 1) 이메일 resume@sunhanchurch.com로 문의 및 지원해 주세요. 이메일로만 문의/접수를 받습니다.
- 2) 접수마감: 2026년 3월 15일까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3)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비밀을 보장합니다.
- 4) 1차 서류 심사 후 면접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보해 드립니다.
- 5) 최종후보자는 원본 제출을 요구합니다.



“선교는 공간 확장을 넘어, 세대 잇는 수직 선교여야”

프라미스교회 허연행 목사

김대원 기자 [이전호에 이어서 계속]

선교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는 본질에 얼마나 충실하느냐에 따라 영향력이 좌우되고, 그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 교회의 ‘크고 작음’이 재정의되는 시대가 왔다고 봅니다. 사이즈는 큰데 대사회적 영향력은 미미하다면, ‘살은 찼으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변화는, 이전에는 오프라인이 거의 전부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온라인도 못지않게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점입니다. 팬데믹 초기에 ‘희망의 속삭임’이라는 숏폼 형식의 영상 메시지를 매주 수요일 아침에 내보내기 시작했는데, 대면예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회가 성도들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 잡았을 뿐 아니라,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인들과 공유되는 ‘희망의 릴레이’로 이어지면서 지구촌 곳곳까지 복음을 전하는 순회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열매도 보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 이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배당에 모이느냐”가 중요한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선교적 마인드로 무장시켜 세상 속으로 내보내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 축도 후 회중이 흠뻑 젖기 전에 “이제부터 2-3분간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마저 들으신 후 생활 속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까”라는 멘트를 종종 합니다. 예배당에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어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형 교회가 겪기 쉬운 위기나 유혹은 무엇이라고 보시며, 프라미스교회는 그 질문 앞에서 그동안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해오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대형 교회일수록 전도와 선교가



프라미스교회 담임 허연행 목사 ©기독일보

‘여러 사역 중 하나’로 밀려나기 쉽습니다. 조직이 커질수록 해야 할 일이 많아지면서, 어느 순간 본질이 ‘n분의 1’로 취급되는 위험이 생깁니다. 저는 이것이 대형 교회가 겪는 가장 본질적인 유혹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라미스교회는 선교를 ‘행사’나 ‘프로그램’으로만 두지 않기 위해 계속 고민해 왔고, 이제는 ‘선교적 교회, 선교적 인생’이라는 방향 아래, 교회의 체질 자체를 선교적으로 바꾸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선교는 특정한 사람이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대형 교회일수록 성도 개인의 신앙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프라미스교회는 규모 속에서도 공동체성과 제자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목회적 장치와 철학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팬데믹 이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선교적 마인드로 세상 속으로 파송되느냐”가 중요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공동체성과 제자도는, 예배당 안에서의 밀도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살아 움직일 때 유지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일 강단과 주중 목장 모임에서 ‘보내심’의 정체성을 반복해서 확인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것, 그 일상이 선교가

되는 것이 제자도의 실천이며, 그 제자들이 모일 때 공동체는 느슨해지기보다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고 믿습니다.

-프라미스교회는 일찍부터 다음 세대(4/14 윈도우)를 교회 전체의 중심 비전으로 세워 왔고, 미주 교계 안팎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언급돼 왔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 사역을 통해 나타난 핵심적인 열매를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4/14 윈도우 운동은 2009년 9월 7일 프라미스교회에서 열린 제1차 글로벌 썬데이 기간 중 공식적으로 출범한 선교전략입니다. 지난 16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여러 열매를 맺어 왔습니다.

해외 사역으로는 다섯 차례 글로벌 선교 컨퍼런스 개최, 중남미를 중심으로 세계 각처에 10개의 크리스천 스쿨 설립, 40여 개 도시 스타디움에서의 축구 선교, 예수님의 생애를 예술적으로 풀어낸 뮤지컬 ‘히즈라이프(His Life) 선교 등 다양한 글로컬(glocal) 사역을 통해 오대양 육대주의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 현장으로 향할 때마다 되새기는 확신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복음에는 신비로운 광채가 있어 우리가 복음을 전한 뒤 현장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그 광채를 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계속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어릴 적 받은 은혜가 평생 간다”는 사실입니다.

다. 셋째, 오늘의 어린이는 10년 후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칠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는 결코 ‘단기 성과’로만 평가할 수 없고, 시간이 지나며 하나님께서 열매를 드러내시는 영역이라고 믿습니다.

그 확신을 다시 확인하게 된 경험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시니어 그룹이 2024년 가을 뉴욕·바하마 왕복 크루즈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우리 그룹 650명 중 네 분이 여권 문제로 승선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배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연세 드신 분들을 부두에 남겨둘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고객 관련 업무(Guest Relations)를 담당하는 최고 디렉터 한 분이 나타나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승객 4천 명과 승무원 2천 명, 도합 6천 명의 일정이 두 시간 정도 묶이긴 했지만 결국 전원이 탑승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디렉터가 온두라스 출신으로, 어린 시절 가난해 학교도 다니지 못하던 때에 뉴욕 프라미스교회 성도들이 내려와 땅을 사고 학교 건물을 지어준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2000년대 초반 그 학교에서 성경을 배우며 인생의 꿈이 생기고, 영어와 여러 과목을 배우며 장래의 길이 열렸고, 그 아이가 훗날 크루즈 회사에서 성실히 일해 최고 디렉터가 됐습니다.

프라미스교회 그룹이 자신이 일하는 배에 탄다는 사실을 알고 설레던 차에, 그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돕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심은 대로 거두리라”,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말씀을 현장에서 실감했습니다.

-현재 이민교회들의 현실을 잘 알고 계신 목회자로서, 프라미스교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이민교회들이 현실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제안이나 원칙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현재 미주 한인교회들의 상황

이 대체로 영세하고, 언어적·문화적 갭 때문에 주류 사회와의 소통과 섬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게토(ghetto)화’, ‘사일로(silo)화’, 심지어 ‘낙도(island)화’ 신드롬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한 가지 현실적 해법으로, 프라미스교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 시행 중인 ‘파워하우스(Power House)’를 권하고 싶습니다.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아 비싼 학원에 보내지 못하고 집에서 게임이나 TV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을 예배당 또는 야외(“Under the Tree”)로 불러 모아, 경건회·뮤직·스포츠·댄스 등 다양한 과목을 기초반·중급반·고급반으로 나누어 무료로 가르치며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는 선교적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역은 교회 사이즈와 상관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족이나 교인 가운데 기타나 드럼을 잘 치는 분, 축구를 잘하는 분 한 명만 있어도 동네 아이들 두세 명을 데리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미주 한인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해 꼭 전하고 싶은 권원의 말씀이 있다면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골프 레전드 벤 호건에게 누군가 “골프백에는 채가 14개나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샷이 무엇이나”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샷은 언제나 다음 샷(the next shot)입니다.”

목회도, 인생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늘 ‘다음 걸음’이며, 그 다음 걸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방향으로 놓여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미주 한인 크리스천들의 가슴 깊은 곳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아낌없이 내어주고 싶은 컴패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민 1세들에게 왜 이민을 왔느냐고 물으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better life)’ 왔다는 사람은 30% 정도이고, ‘자녀들을 위해서(better education)’ 이민을 결심했다는 분이 70%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선교와 전도에 접목된다면, 수직 선교(구심력)와 수평 선교(원심력) 두 영역에서 모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새해, 그 은혜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학생 모 집 **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교**
 B.th, Th.M, M.Div, D.Min, Th.D **coafs-07-388665**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신학박사 인가 대학은 3곳**뿐입니다.
 ■ 학교운영하실 분 \$7만불 (신학철학책 1만권 포함)
 ■ 나성중부교회 김 호 박사 / 캘리포니아 디렉터
213-507-1933

김영길 목사의 가슴으로 읽는 성경
 지친영혼을 깨우는 아침 10분 처방전
규알코드 촬영 후 구독신청해 주세요
 영혼을 위한 아침 처방전(Morning Prescription)
 [복용법] 매주 월/수/금 아침, 출근길이나 조용한 시간에 복용하세요.
 [효능] 불안 완화, 마음의 편안, 영적 회복
 Youtube.com / @Youngkingamsa

문선영의 머니토크
“아들이 어뉴이티는 절대 하지 말래요. 에이전트만 좋은 일래요”

질문 안녕하세요 문선영씨 저는 버지니아에 살고 있는 64세 미세스 오입니다. 저희 부부 막상 은퇴를 하려니 뭐 변변하게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저희 남편은 67세인데 직장에서 401K가 있는데 아들과 딸 결혼할 때 각각 집 다운페이로 저희 남편 401K에서 조금씩 빼서 해줬습니다. 후회는 안하는데 지금 보니까 401k에 남은 돈은 18만불 밖에 안되고, 저는 IRA에 가지고 있는 돈이 10만불 정도입니다. 둘이 합쳐 28만불인데 거기에 소셜로 생활하는 것도 넉넉치 못해 이리 저리 궁리 중입니다. 여기에 차라리 이미 페이 오프 한 집을 줄여서 작은 콘도로 이사를 가고, 남은 돈 30만불 정도를 합쳐서 남편의 401k 18만불, 제 IRA 10만불 그리고 집 팔고 남은 돈 30만불을 합쳐서 58만불에서 50만불을 어뉴이티에 넣으면 어떨까 싶어 문선영씨에게 전화를 하고 상담을 하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아들이 집에 놀러와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뉴이티는 에이전트만 좋은 일 시키는 거라고 절대 하지 말라며 아들이 자기에게 맡기면 주식으로 돈 불러 주겠다고 걱정 말라고 합니다. 진짜 어뉴이티가 아들이 말한 대로 에이전트만 좋은 일 시키는 플랜인가 걱정이 되지만 그렇다고 아들을 다 믿을 수도 없고, 문선영씨의 유튜브를 정말 잘 보고 있으면서 이런 저런 공부를 참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 같이 이런 어리석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일단 아드님이 말씀하시는 어뉴이티가 에이전트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와 편견에 대한 얘기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은퇴플랜에서 고정인컴을 받아 쓸 수 있는 어뉴이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85세까지만 살아도 장수했다 하는 시절이 지나고 이제는 100세까지 살까봐 무섭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이 50만불이라는 돈을 일년에 5만불씩만 꺼내 써도 10년이면 선생님들 74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만불을 넣어 놓고 100세까지 무조건 딱딱딱한달에 3천불씩 혹은 3천5백불씩 보장되어 매달 나오 는 그런 어뉴이티 연금을 가입하시면 100세까지 쓰신다 해도 126만불에서 백오십1만5천불을 찾아 쓰는 플랜입니다. 50만불을 넣어놓고 언제부터 찾아 쓰느냐에 따라 백 2십 만불에서 백 5십만불을 원금의 세배까지도 찾아 쓰는 것이 어뉴이티인데, 장수 시대에 걱정 없이 월급처럼 소셜 연금처럼 꼬박 꼬박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 돈이 줄어들지는 않을까, 부족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게 바로 연금 어뉴이티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금 어뉴이티 플랜이 에이전트에게만 좋다고 생각하는 오해와 편견은 다음 두가지 때문에 야기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째, 어뉴이티에서 받는 돈이 2% 4% 정도 밖에 되지 않

은 과거 어뉴이티를 생각해 보면 수익이 적으니, 내가 투자하는 것이 더 이익이 크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평균 8% 까지도 내가 받는 금액의 수익이 더 높은 어뉴이티, 요즘 얼마나 좋은 어뉴이티가 많은데 이런 어뉴이티를 찾아서 플랜을 가입하면 되는 거고요, 둘째, 내가 어뉴이티에 돈을 넣어 놔더니, 에이전트가 내 돈에서 커미션을 다 받아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런데요. 투자성 어뉴이티로 들어가게 되면 매년 에이전트가 투자에 따른 Fee를 받아 가는 경

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직접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성 어뉴이티가 아닌 주식 간접투자주 주식만 큼 이자를 받지만 내 돈을 한 번도 잃지 않고 Fee 같은 비용이 나가지 않는 어뉴이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내가 평생 고민 없이 100세까지 돈이 나오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고, 내가 넣은 돈에서 에이전트가 커미션 떼어 가지 않고! 어뉴이티 정말 전 문가랑 잘 고르시면 선생님께 최고의 은퇴 플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까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문선영이었습니다.

Sunyoung Moon
 Financial Professional | 재정전문가
626.827.9599
 SYMOONMONEYTALK@GMAIL.COM
 WISECALIFORNIA 문선영의 머니토크 왕도모든문선영의머니토크

3435 Wilshire Blvd., 14FL A04, Los Angeles, CA 90010
 6 Centerpointe Dr., Suite 737, La Palma, CA 90623

KINGDOM ENTREPRENEUR

바이오텍 비즈니스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다

텔로유스 바이오텍 B.A.M

Business As Mission 성공사례 발표

AI와 로봇이 인간의 지성과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 세상은 지금 묻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 ✔ 비즈니스는 사명입니다!
- ✔ 사명은 영향력입니다!
- ✔ 영향력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텔로유스 바이오텍은 단순한 제품이나 수익을 넘어, 세포 신호 소통(Cell Signaling) 기술을 기반으로 생명을 회복시키고 사람과 공동체를 살리는 '킹덤 비즈니스(B.A.M)'의 실제적 모델을 실현해 왔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기업가로 부르심 받은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이론이 아닌 검증된 성공사례를 통해

- 비즈니스가 어떻게 선교가 되는가?
- 신앙과 기업이 분리되지 않는 실제 구조
- 생명 회복 기술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 영적 영향력
- 차세대 Kingdom Entrepreneur를 위한 비전과 기회를 실제 사례와 간증 중심으로 공유합니다.

- 일 시 : 2026년 2월 28일 (토) 오후 3시
- 장 소 : 텔로유스 본사 (6820 Orangethorpe Ave, Suite G, Buena Park, CA 90620)
- 초청 대상 : 기독교 실업인 · B.A.M에 관심 있는 분, 바이오텍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분
목회자 · 선교사 · 차세대 창업가 40-50대 환영
- 신청마감 : 2월 25일까지 예약 필수 (RSVP) (큐알코드 스캔 후 등록)
- 문 의 : 714-732-8477 Email: pjkim2000@gmail.com
폴 킴 선교사 (TeloYouth Biotech B.A.M Director / TeloYouth 젊음회복프로그램 수석코치)

www.TeloHealing.com
www.teloyouthkorean.com



폴 킴
젊음 회복 프로그램 수석코치
텔로 바이오텍 뱀 디렉터



Dr. Chris Morris
세포 신호 폼물레이터



Dr. Tina Johnson
세포 신호 폼물레이터



(큐알코드 스캔 후 등록)

자문위원

김재종 박사 : 신경과 의사/사우스베일로 한의학대학 교수, 현 라구나우즈 감리교회 장로
양성전 목사 : 대한민국 국회조찬기도회 지도위원, GMS 동남부아프리카 선교사, 강영우 박사 장학회 사무총장
필립박 목사 : 국제 나사렛교단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선교사, 뉴욕뉴저지 아시아인 아메리칸 미니스트리 감독, 현 Awakening Souls Ministries Inc. 대표
미미송 박사 : Reprogreen Homecoming Ministry 대표, GLDI 공동창설자, IPP 국제선정의원, 민족교류협 미주회장